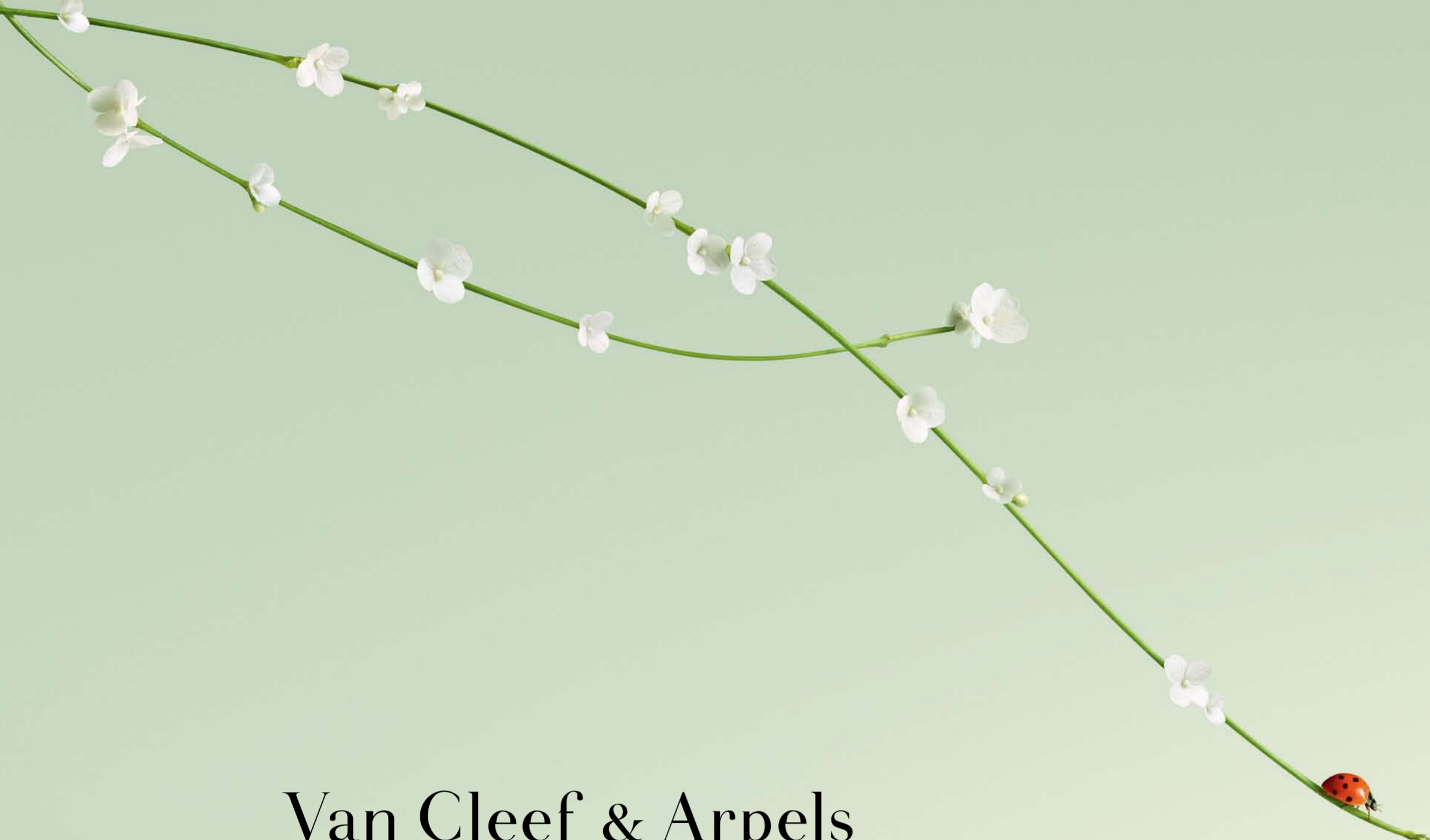


Style 1 조선일보

JANUARY 2020
vol.199



Cartier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Frivole collection
Between the Finger Ring,
yellow gold and diamonds.

CAPTURE TOTALE

캡춰 토탈 쉐 에너지 슈퍼 포텐트 세럼

20년간의 끊임없는 연구
10개의 특허 기술
6개 대학들과 긴밀한 협업



91%
자연 유래 성분¹
디올 가든에서 얻은
룬고자 추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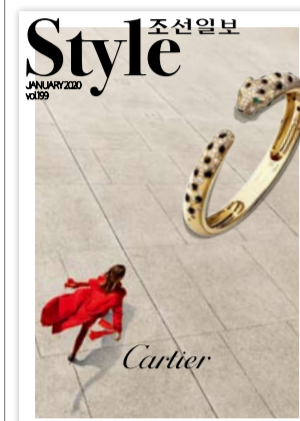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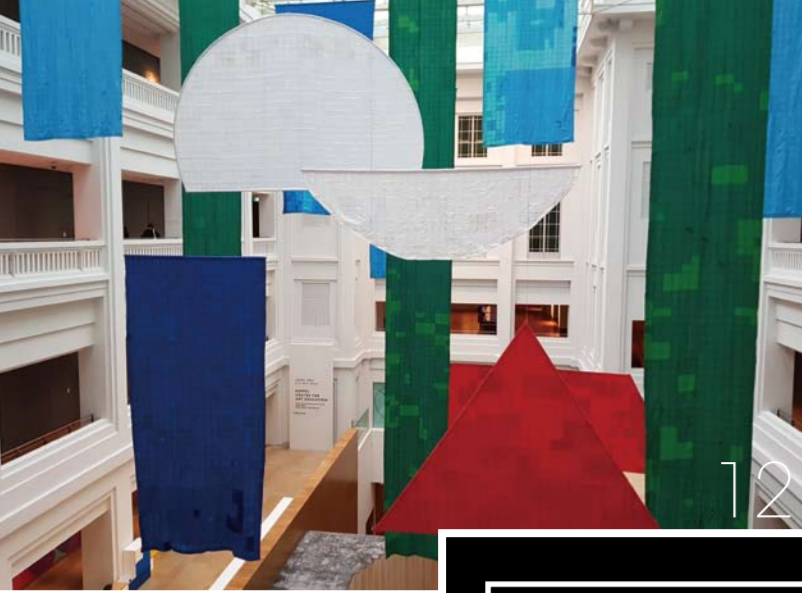
건강한 빛으로 차오르는 피부를 위한 토탈 안티-에이징 세럼
피부에 대한 디올의 전문적인 연구와 플로럴 사이언스로 탄생한 스킨케어 솔루션

디올은 시간이 갈수록 피부가 자생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디올의 특별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통해 피부에 강력한 활력을 선사하는 4가지 꽃 식물 복합체를 캡춰 토탈 세럼에 담았습니다.
캡춰 토탈 세럼의 강력한 6가지 개선효과가 피부 가득 생기를 충전하고 맑고 화사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사용 후 단 7일만에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고 피부 속 맑은 빛이 되살아납니다.
한 달간 꾸준히 사용하여 오랜 시간 변함없이 아름다운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98%의 아시아 여성이 캡춰 토탈 세럼의 스킨케어 효과에 만족하였습니다.³

¹ISO 16228 standard Paris 18 2 기준. ²룬고자 추출물(Mammum Argusobium) 함유 화장품 조성물 특허 등록, KR101460793. ³60명의 아시아 여성이 1개월 사용 후 진행한 자기평가.

지젤 번천
캡춰 토탈 앰배서더

D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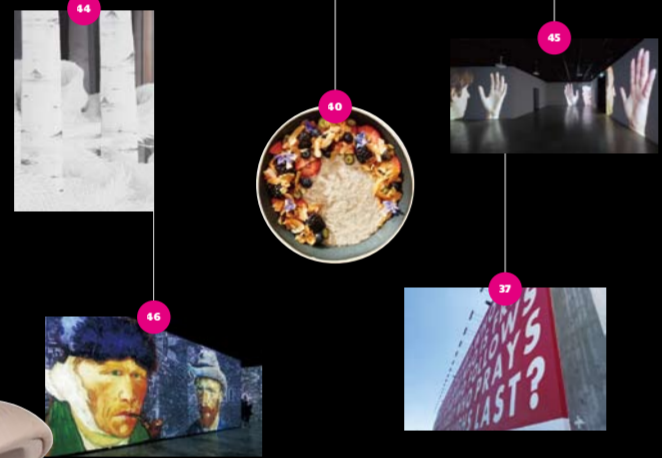


조선클럽
Style
JANUARY 2020
vol.199

가르미에의 대표작인 아이리쉬 주얼리 컬렉션 팬더드 가르미에. 오는 1월, 팬더드 얼굴과 스콧 등 주요 특징과 긴장한 긴장한 디자인으로 부담 없이 착용 가능한 새로운 컬렉션을 전 세계적으로 공식 론칭한다. 표지 속 제품은 18K 옐로 골드에 였닉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라 팬더드 브레아슬러스. 문의 1566-7277

Cultural Landscape

이제는 생활의 질, 시간의 여유, 여행의 즐거움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어야 한다. 문화와 예술은 이러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0

- 12 **SINGAPORE BIENNALE 2019** 2019 싱가포르 비엔날레(SB 2019)가 2019년 11월 막을 울려 오는 3월까지 이어진다.
- 14 **CHUN KWANG YOUNG** 손다람 타고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전 광명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본다.
- 15 **BE BOLD, BE BEAUTIFUL** 대담한 아름다움을 동시대적인 방식으로 담아낸 볼드 주얼리 피스.
- 16 **ROMEO & JULIET** 세익스피어의 러브 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이 빈클리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재탄생했다.
- 18 **HEALING SCENTS** 찬 바람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줄 포근하고 향기로운 제품들.
- 19 **GO FRESH** 2020년 리즈트 & 크루즈 컬렉션을 정의하는 키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 11.
- 20 **IT SIGNATURE** 척 보면 딱 알 수 있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것.
- 29 **AMERICAN LUXURY SUV** '아메리칸 럭셔리'의 대표 주자 랭컨이 새롭게 선보인 '올 뉴 에버에이더'.
- 30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한다.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위한 슈머 뷰티 아이템.
- 31 **ODE TO PARIS** 2020년 1월, 파리를 향한 데티크의 오마주를 담은 특별한 향 '오 카피탈 오 드 파퓸(Eau Capitale eau de Parfum)'이 출시된다.
- 32 **WINTER ESCAPE** 대체로운 휴향이 어우러진 호텔민과 최근 휴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호텔, 상반되는 두 여행지의 매력.

SPECIAL ART + CULTURE

- 36 **ART AND THE CITY, L.A.** 로스앤젤레스 내 지역별 현대미술 위주로 발품을 팔 만한 요지를 추려봤다.
- 40 **WHERE TO STAY 'COOL' IN LOS ANGELES** 차원이 다른 럭셔리를 원하는 21세기 디지털 유목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호텔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로스앤젤레스의 호텔 풍경에 창의성 갖춘 색다른 럭셔리 감성을 선사하는 호텔 세 곳을 소개한다.
- 42 **KOREAN WAVE** 이제는 미술 한류라는 표현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실을 정도로 한국 작가들의 행보가 눈에 띈다. 글로벌 무대를 누비며 자마다 창조적 여정에서 의미 깊은 자취를 남기고 있는 3명의 미술가를 소개한다.
- 45 **THOUGHT-PROVOKING** 아랍 문화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와엘 샤카(Wael Shawky), 그리고 스스로를 '언어 예술가'라고 소개하는 비디오아트의 가장 개러 힐(Gary Hill). 두 작가의 전시를 맡은 각각의 큐레이터가 소개한다.
- 46 **VAN GOGH & GAUGUIN** '문화 아이콘'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그리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천재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을 아주 즐거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그림 같은 경치를 병풍처럼 두른 제주에 오랜 시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 병자를 다수의 빔 프로젝터와 스피커를 설치한 근사한 전시장으로 탈바꿈시킨 빛의 병커.

Style 조선일보

Issue.199 January 2020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장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GENIUS IS BORN CRAZY

**Jewel
GOOD LUCK
TO YOU!**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새해 행운의 주얼리 6.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행운의 아이러니 클로버 모티브로 장식한
베를리 클로버 브레이슬릿 3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태양을 모티브
삼아 프군한 은 19행복을 표현한 피아제 스타인이트 파베 세팅 펜던트
네크리스 1천3백만원대 **피아제**, 풍요, 지혜, 장수를 상징하는 벨가에서
영감을 얻은 세르펜티네 세두트리 브레이슬릿, 1천3백만원대 **불가리**,
행운, 번영, 성공을 상징하는 원석 시트랄을 펜다가 감싸고 있는 팬더
드 카르띠에 네크리스 3천3백만원대 **카르띠에**, 번영, 행운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원석으로 일러진 카르띠에를 새겨놓은 새해보통 카르띠에
드롭 이어링 2천만원대 **부세넬**, 행복의 상징 세 일 클로버 모티브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
다이아몬드 & 탄자나이트 플라워링 9백20만원 **티파니**, 에디터 **이주이**

**Fashion
WILD
INSTINCT**

다채로운 이그조틱
무드를 입고 태어난
패션 액세서리 4.

(왼쪽부터) 화려한 오일드 플라워 인브로이더리 장식의 스파이더 주얼 포인 박스 클라치 3백50만원대 **인빅스신더 맥퀸**, 도마뱀귀족 효과를 낸 엠보싱 카프
레드에 대담한 레드 스트라이프, 비버리 모노그램 클레스프를 다한 TB 백 3백29만원 **버버리**, 지름이 작은 글라스 필름 비즈처럼 여러 층으로 조밀하게 엮은
이국적인 디자인의 네크리스 가격 미정 **사펠**, 옐로 컬러 포인트를 다한 레오파드 프린트 아이 러브 비버리 캠프스 1백34만원 **로저 비버리**, 에디터 **이혜미**

포토그래피: 최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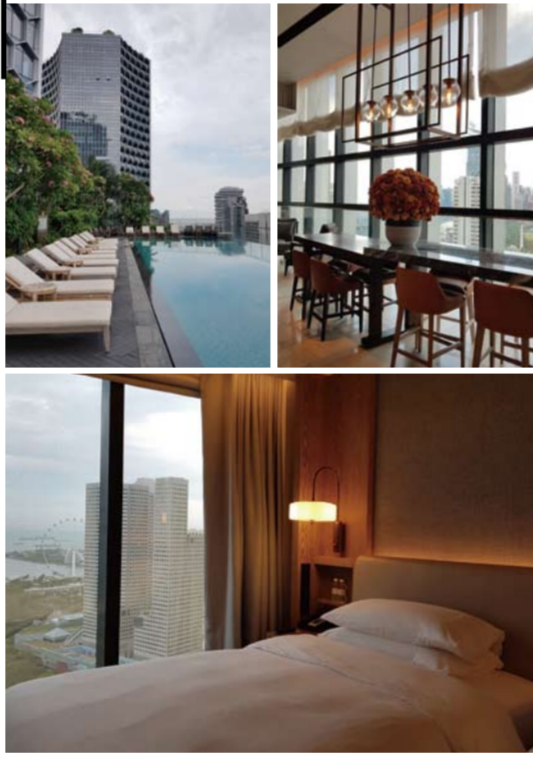
포토그래피: 최승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Hot Place
안벽에 가까운 짜임새를 자랑하는 부티크 호텔,
안다즈 싱가포르(Andaz Singapore)

겨울철 여행지로 많이들 염두에 두는 동남아시아의 히브 도시 싱가포르. 휴식 이 도시
로 떠나거나 경유하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꼭 기억할 만한 부티크 호텔이 있다.
바로 럭셔리 부티크 감성을 품은 하얏트 계열의 호텔 브랜드 안다즈 싱가포르(Andaz
Singapore). 지난해 서울 강남에도 안다즈 서울 강남이 생겼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꽤
익숙해진 브랜드인데, 특히 안다즈 싱가포르는 안다즈 팬들 사이에서도 평점이 유독 높
은 진정한 '핫플'이다. 일단 건물 디자인 자체가 외부에서부터 눈길을 끄는 듀오(DUO)
타워에 자리한 이 시라스라운 호텔은 도심에서도 아드득 기기 편하고 공황에서 20분 거
리라는 입지도 좋지만, 무엇보다 공간과 서비스의 짜임새가 빼어나다. 체크인을 하는
로비층에 있는, 투숙객을 위한 휴식 공간인 '선룸(Sunroom)'에서 온종일 간식을 제공
한다. 도시의 빌딩 숲을 벗어나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으며 잠수를 하면 음악이 들리는
디테일이 돋보이는 야외 수영장(25층), 풍부하고 맛난 조식 뷔페를 비롯해 로컬 요리,
스테이크 하우스, 대만 아끼 등 다채로운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구성 등 거의
출점을 데가 없다. 밤이면 꼭대기인 39층에 자리해 환상적인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루
프톱 바 Mr Stork도 그 매력도에 잠수를 보탠다. 오는 3월 22일까지 현대미술 축제인
싱가포르 비엔날레가 열린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에디터 **고성연**



포토그래피: 장민아, 이시연, 조소미

**Beauty
SOFT & NOURISHED**

보습은 기본, 풍부한 영양 성분과 아름다운 향까지 갖춘 핸드크림 5.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이레도 슬로우 맨스 핸드크림** 매혹적인 오프파나스 향
으로 사치해 달콤한 바닐라와 파출리로 이어진다. 향이 비교적 오래 지속되어 향수 대용
으로도 좋다. 시아버터 성분 덕분에 가볍고 촉촉하게 밀리며, 콤팩트한 사이즈와 실용적
이다(30ml 4만18천원). **탐버린즈 누드아이젠드크림 #218** 탐버린즈에서 새롭게 선보
인 고보습 핸드크림으로 쿠쿠아수 시드, 버터와 달걀의 풍부한 영양 성분이 집중적인 보
습 효과를 선사한다. 바닐라와 시너우드 향이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게 이어지는 진화적
매력적이다(65ml 3만2천원). **시슬리 레베리뜨스 핸드크림** 바이오스카리이드 솔루션
과 슈거, 방나무 추출물이 피부 질감을 강화하고, 시어 오일이 손을 부드럽고 편안
하게 유지해준다. 허브타고피통근 추출물이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어, 프로 비타민 B,
이몬드 오일 성분을 함유해 손 피부뿐 아니라 큐티클 관리에도 효과적이다(75ml 10만
원). **사펠 라 크렘 망**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메이 로즈 엑스와 피부 톤을
환하게 밝혀주는 아이리스 플라다 추출물이 손 관리에 도움을 준다. 가벼운 크림 제형이
부드럽게 발리고 빠르게 흡수된다. 은은하면서도 편안한 향(50ml 8만원). **조 알론 런던**
피오니 앤 블러쉬 스퀘이드 핸드크림 브랜드의 베스트 핑을 핸드크림으로 선보였다. 같
은 향의 코롱과 함께 사용하면 더없이 좋은 아이퀸. 작위파 붉은 사회의 향로운 과즙,
재스민과 정미, 그리고 캐비어산을 조합한 향이 긴 여운을 남긴다.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발려 산뜻하게 마무리된다(50ml 4만18천원). 에디터 **이주이**

포토그래피: 장민아, 이시연, 조소미

Design
소리과 빛의 미학을 담은 조명, 리문(Ramun)의 벨라(Bella)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쉽게 '최애' 품목을 찾기 힘든 조명의 세계. 심신을 감싸듯 부드러
운 색조의 빛만 선사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음악 등의 조화로 오감을 즐겁게 자극할 만한 제품이
나왔으니, 테이블 램프나 침실 스탠드 조명을 찾는다면 주목하라. 네덜란드의 스타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르스(Marcel Wanders)가 디자인한 조명 브랜드 리문(Ramun)과 손잡고 선보인 벨라
(Bella), 투명하고 재벌 커다란 중 모양인 이 조명은 표장 상자를 열고 손을 댄 때부터 즐거움을
안겨주는 흔치 않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 뒷부분을 살짝 터치하면 은은한 빛이 감돌면서 어디에
선가 들어본 멜로디의 음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음악 스펙트럼에는 바흐, 푸치니, 쇼팽, 파헬
벨 등 열 가지 클래식 음악, 그리고 스위스 오르골 명인의 'Happy Birthday' 멜로디가 포함된다.
조명 바디에는 마르셀 반더르스가 새겨 넣은 'Geef liefde meer dan men verwacht'라는 네덜
란드어 문구가 있다. '행상 당신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보여주세요'라는 뜻. 리문은 2019
년 세상을 떠난 디자인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만든 아틀레토리는 테이블 조명 제품으로 잘 알
려진 브랜드다. 마르셀 반더르스의 벨라는 멘디니가 생전에 세계 유수 디자이너, 건축가, 예술가
들과 전개한 협업 프로젝트 '세븐 스타즈 프로젝트(Seven Stars Project)'의 두 번째 결실이다(첫
번째는 멘디니가 디자인한 양방향은 전자 촛불 같은 조명 '깜파넬로'). 인과 전문의의 가이드 아래 '눈 건강'에 신경 썼음은 물론, 자외선과 적외선 방
출이 없고 빛 발광과 발열 현상이 없도록 디자인했다고, 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에디터 **고성연**



SKIN CAVIAR
EYE LIFT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

생기있는, 탄력있는, 또렷한
눈매를 되찾아준다

캐비아 프리미어를 담은 첫 번째 아이 세럼 라프래리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
캐비아가 구현한 아이 세럼의 강력한 퍼밍 효과로 눈썹 라인을 포함한
눈가 전체에 탄력과 생기를 부여하여 눈매를 또렷이 살려줍니다.
진귀한 캐비아 비즈와 세럼이 사용 시마다 신선하게 활성화됩니다.

— 캐비아 프리미어 함유 : 라프래리만의 과학으로 탄생한 캐비아 추출물로 캐비아 본연의 잠재력을 이끌어낸 캐비아 완전체

현대백화점 안구정분점 02.3438.6077 | 무역센터점 02.3467.8612 | 목동점 02.2163.1152 | 천호점 02.2225.7156 | 판교점 031.5170.2120 | 부산점 051.667.0130 | 대구점 053.245.2135 | 울산점 052.228.0160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30 | 잠실점 02.2143.7187 | 강남점 02.531.2156 | 분당점 031.738.2167 | 부산본점 051.810.3108 | 광주점 062.221.115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68 | 강남점 02.3479.1291 | 경기점 031.695.1667 | 대구점 053.661.1878 | 센텀시티 051.745.2279 |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WEST 02.516.8881 | AK PLAZA 분당점 031.709.9742



XC90. RECHARGED.

스칸디나비아 럭셔리 디자인으로 보다 완벽하게, 풍부한 사운드와 안락한 시트가 더욱 편안하게, 지능형 인텔리세이프 시스템이 여전히 안전하게,

일상의 여정까지 재충전의 시간으로 선사하는 새로워진 XC90으로 당신의 삶을 결국 여유롭게.

THE NEW VOLVO XC90
MADE BY SWEDEN



5년/10만km 보증 기간 연장 및 소모성 부품 서비스*

서울 신사 02 515 9090 송파 02 413 0900 용산 02 794 1800 목동 02 2061 6789 동대문 02 2212 8855 대치 02 569 6080 서초 02 3486 2900 인천 032 858 0777 경기 일산 031 906 6789 분당 031 707 2266 수원 031 216 6777 안양 031 385 6789 강원 원주 033 735 2900 대전 042 628 2200 충청 천안 041 569 2900 광주 062 372 3600 전라 전주 063 275 3600 순천 061 754 7200 대구 053 768 5588 울산 052 268 0900 경상 포항 054 278 7900 창원 055 714 8020 부산 해운대 051 714 7400 광안 051 759 1600 *고객센터 1588 1777

볼보자동차 홈페이지 www.volvocar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volvocarkorea 인스타그램 instagram.com/volvocarkorea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XC90 D5 AWD(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2,160kg, 저중 8단) 복합연비:10.9km/l(도시연비10.8km/l, 고속도로연비11.1km/l) CO₂배출량:176g/km, 등급:4등급. ·XC90 T6 AWD(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2,120kg, 저중 8단) 복합연비:9.3km/l(도시연비8.2km/l, 고속도로연비11.1km/l) CO₂배출량:187g/km, 등급:5등급. ·XC90 T8 AWD(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미정, 저중 8단) 복합연비(플러그인하이브리드):휘발유 미정, 전기 미정, 1회 충전주행거리 미정(도시연비:휘발유 미정, 전기 미정, 1회 충전주행거리 미정, 고속도로연비:휘발유 미정, 전기 미정, 1회 충전주행거리 미정) CO₂배출량:미정.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텔리세이프(City Safety, Pedestrian Detection & Collision Warning with Full Auto Brake 등 지능형 안전 시스템)는 운전자의 조종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로서, 환경 및 조건에 따라서 작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주행 중에는 항상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광고 이미지의 차량과 국내 판매 모델은 제원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옵션은 상위 모델에만 적용되는 사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보자동차 공식 전시장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보증기간 연장 및 소모성 부품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볼보자동차 공식 전시장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8만원에 20% 할인 혜택이
1백만 원 MCM.

아사테이트 프레임
선글라스 45만원 토즈.

올가미 100%인 울모자.

오일핀 기호세 타이일에
인테스를 상용해
모터나 리를 강조한
보이프로드 트루드
는 스텝업 할지
가격 미정 사일 워치.

ASIRREAS의 유채
아사테이트 프레임 액세서리

안테 공학적
설계로 착용감과
차음성이 뛰어난
베오플레이
E8 2.0 무선
이어폰 45만원
방안음음스.

천연 모피로 제작된
폼폰 키링 15만원
이브스모로.

부드러운 송이까지 줄로 제작한
핸디 FF 토트 미니백, 38x27cm,
39만7천원 판매.

스자형 후크 심봉이 돋보이는 레드 코드
브레이슬릿 11만9천원 스와로브스키.

특유의 세련된 장식을 더한 부트다운
폼폰 키링 15만원 가격 미정 사일.

핸드 페인팅으로 완성한 우드
폼폰 60만원 에르메스.

간편한 스카프로 제작한
레이스업 슈즈 70만원더 차리스.

자신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바스킷 키링 2만 1천원 부비.

물결처럼 유연한 실린 스텝백 스트랩 20만원더 프라다.

평범한 스카프로 다양한
스카프 트라세 데코레이터 1백40만원더 가블라에.

태슬 장식 실크
스카프 가격 미정
올가미 가블라.

귀금속은 스웨이드 벨트 188,900원
브룩스브라더스.

간치니 버클로 포인트를
준 해머드 카프 스카프
이어폰 8 케이스 29만원
살바토레 페라기오.

양모라 페도라 47만원
카인스키.

인텔리세이프 시스템이 여전히 안전하게,

Selection

해피 뉴 이어! 당신을 위한 신년 첫 쇼핑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취의 해를 맞이해 선보이는 메타에 더
레전드 오브 차이나즈 조다의 워치, 칼리버
2460 G4를 탑재했으며, 핸즈가 없는
다이얼에서, 분, 요일, 날짜, 네 가지 창을
장착했다. 1억 원대 바세린 콘스탄틴.

미우미우 02-3218-5331 MCM 02-540-1404 토즈 02-3438-6006 방안음음스 02-518-1380 이브스모로 02-3479-6111 몽클레르 02-514-0800 사일 워치 080-200-2700 카인스키 02-3433-6593 스와로브스키 1661-9060
벤디 02-2056-9023 살바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에르메스 02-542-6622 사일 080-200-2700
바세린 콘스탄틴 02-3446-0888 차리스 02-3479-1140 루미 02-539-8160 올가미 02-2092-6643
가르미에 1566-7277 프라다 02-3218-5331 에르메스 02-518-0285 브룩스브라더스 02-2052-8822



Singapore Biennale 2019

현대미술을 둘러싼 다양한 면모와 우리를 즐겁게, 때로는 우울하게 각성하도록 하는 축제, 비엔날레. 각각의 색깔도 역사도 현주소도 다르기에 여러 도시의 비엔날레를 보는 여행은 꽤 재미나고 알찬 여정이 될 수 있다. 그래도 누군가는 “싱가포르에서도 비엔날레가 열려?”라고 놀랄지도 모르겠다.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지는 않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축제로, 개항 2백 주년을 맞이해 더 뜻깊기도 한 2019 싱가포르 비엔날레(SB 2019)가 지난해 11월 막을 올려 오는 3월까지 이어진다. 주제는 ‘Every Step in the Right Direction’. 필리핀의 저명한 학자이자 기획자인 패트릭 D. 플로레스(Patrick D. Flores)의 짜임새 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6회 싱가포르 비엔날레의 현장을 소개한다.

‘격년제라는 뜻을 지닌 이탈리아어에서 따온 ‘비엔날레 (biennale)’는 어느새 현대인의 일상에서 제법 익숙해진 단어다.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역사가 가장 길고 권위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잘 모르더라도 오는 가을에 개최되는 광주 비엔날레를 비롯해 세계 여러 도시에서 현대미술 축제인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기 때문. ‘비엔날레 과잉’이라는 비판이 자주 나오고, 꽤 일리도 있는 지적이지만 지역성을 충분히 살리되 글로벌 맥락을 잃을 줄이는, 잘 꾸린 비엔날레는 분명 의미가 있다. 대개 다국적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하지만,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관점과 상황에서 현대미술로 풀어낼 기회가 좀 더 많아지므로 관람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아트 축제인 동시에, 외부인에게는 낯선 지역이나 도시에 대해 발걸음을 하거나 제대로 곱씹어보거나 하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이번에 6회를 맞이한 싱가포르 비엔날레(Singapore Biennale 2019)는 ‘젊은’ 비엔날레인 편이고 규모도 방대하지 않지만 동남아시아라는 한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존재감이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막을 올린 뒤 4개월간의 대장정을 펼치고 있는데, 주제는 ‘Every Step in the Right Direction’. 기후변화와 다방면(사회, 경제, 정치, 문화)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요동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결단, 그리고 실천적 과제를 뜻하는 문구. 동남아 지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77명의 아티스트가 더 나은 세상을 일궈내기 위한 인류의 노력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여러 상황과 각 단계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짚어보는 ‘통찰의 장’이다.

‘Every Step in the Right Direction’ ‘사자의 도시(Singapura)’라는 뜻을 지닌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부산보다 면적이 작고, 인구는 6백만이 되지 않는

이 도시국가는 편리한 인프라와 깨끗한 환경, 양호한 치안 등으로 관광지로 이미 인기가 많은 ‘강소국’이다. 문화 예술적으로도 제법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는데, 이번 싱가포르 비엔날레를 펼쳐내는 전시장으로 도시 곳곳에 있는 11개 장소가 동원됐다. 싱가포르의 도심 자체가 그리 넓지 않기에 복잡하지 않은 동선이 오히려 나름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국립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NGS), 옛 군대 병영을 활용한 ‘아트 허브’ 길먼 배럭스(Gillman Barracks), 아시아 문명 박물관 등을 무대로 활용했고, 1백50여 점에 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재단장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인 현대미술 플랫폼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SAM)에는 임시 가림막을 활용한 공간이 마련됐다). 주무대 중 하나인 내셔널 갤러리는 구(舊) 대법원 건물과 시청 건물을 연결해 만든 독특하고 넓은 공간에서 아티스트 36명이 펼친 다양한 전시와 작품이 단연 눈길을 끌었다. 건물 안을 거닐다 보면 여러 위치에서 보이는 대형 설치 작품이 있는데, 흰색, 녹색, 하늘색, 청색, 빨강 등으로 이루어진 13개의 베너가 어우러져 있는 패트릭 작품이다. 이번 비엔날레를 위한 커미션 작품으로 샤론 친(Sharon Chin)의 ‘In the Skin of a Tiger: Monument to What We Want(Tugu Kita)’. 이 패트릭 작품 밑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를 타고 설치된 작품도 ‘검은 재단’인지, ‘나무집’인지 모를 모양새를 뽐 내 은근히 눈길을 끄는데, 역시 비엔날레 커미션 작품인 ‘Black-Hut, Black-Hut’(2019)이다. 인도네시아 화가 출신으로 싱가포르에서 주로 활동하는 보에디 위자야(Boedi Widjaja)의 작품으로 공적인 역사와 사적인 추억이 깃든 집, 가정, 모국 같은 개념의 연관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듯 전시장 곳곳을 수놓은 다채로운 설치 작품도 눈여겨볼 만하지만, 자유를 결을 지닌 영상 작품도 상당하다. ‘Funeral’(2018), ‘Monologue’(



1 2019 싱가포르 비엔날레의 주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NGS)의 설치 풍경. 샤론 친(Sharon Chin)의 패트릭 설치 작품 ‘In the Skin of a Tiger: Monument to What We Want(Tugu Kita)’가 공간을 수놓고 있다. Photo by SY Lee 2 옛 시청과 대법원의 건물을 연결해 만든 NGS의 외관. Photo by SY Lee 3 역시 NGS에 설치된 ‘Absentee Landlords’(2019). 런던에 7천을 둔 건축 스튜디오 muf architecture/art의 작품이다. Courtesy of Singapore Art Museum 4 NGS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Suddenly Turning Visible’(작가와 Architecture in Southeast Asia(1969~89)) 전시 모습. Courtesy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5 길먼 배럭스(Gillman Barracks)에서 설치되고 있는 ‘Reincarnations’(2019). 태국 방콕 출신의 작가 프랑삭 아누왓위몬(Puangsak Anuwatwimon)의 작품. Courtesy of Singapore Art Museum 6 싱가포르의 명물 마린 베이 샌즈에 있는 아트사이언스 뮤지엄(ArtScience Museum)의 외관. Photo by SY Lee 7 아트사이언스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2219: Futures Imagined)’에 선보인 바리사(Lisa Park)의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 ‘Blooming’(2018). Courtesy of artist 8 아시아 문명 박물관의 들 풍경. 9 (2219: Futures Imagined)의 전시 풍경. 한국 작가 허산의 작품이 보인다. Courtesy of Marina Bay Sands 10 라살 예술대학에 전시 중인 이소영의 ‘Gooseberry Project’(2009~2019) 전시 풍경. 11 로리 앤더슨(Laurie Anderson)과 신치엔후앙(Hsin-Chien Huang)의 VR 작품 ‘The Chalkroom’. Courtesy of Singapore Art Museum 12 싱가포르 비엔날레 전시장 중 하나인 라살 예술대학(LASALLE College of the Arts)의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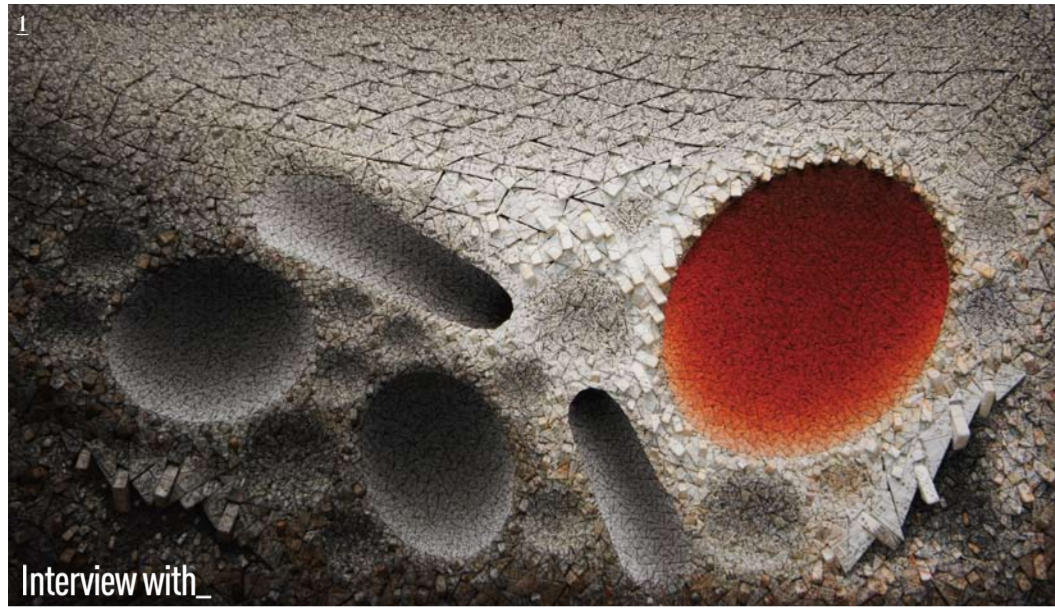
(2015) 등 세 작품을 하나의 전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캄보디아 작가 반디 라타나(Vandy Rattana), 영화음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카모토 류이치(Ryuichi Sakamoto) 같은 인물도 만날 수 있고, 미술관의 전신인 시청의 역사와 더불어 싱가포르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영상관도 흥미롭다. 또 지역의 사회·문화적 발달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특별전 ‘Suddenly Turning Visible’도 주목할 만하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특징점으로 내세우는 행사답게 196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말에 걸친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3국의 현대미술과 건축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크지 않은 규모지만 일차, 조화로운 콘텐츠의 향연 휘황찬란한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아트 파플’에게는 잘 알려진 명소인 길먼 배럭스는 역시 이번에도 근사한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 식민지 시절 싱가포르의 영국군 막사를 정부 주도로 묘한 분위기의 갤러리 지구로 탈바꿈시킨 이곳에서는 20명이 넘는 아티스트와 그룹이 작품을 전시 중인데, 옛 병영답게 ‘블록 07’, ‘블록 09’ 같은 표지판을 세워놓은 각각의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저마다 다른 개성의 작품 세계를 감상하는 일이 일종의 ‘산책처럼’ 느껴질 수 있다. 날 날카로운 관찰력과 통찰력으로 독특한 작품을 선보이는 카롤리나 브레굴라(Karolina Bregula)의 작품으로 ‘평화로운 대만의 한 마을에서 불거지는 미스터리 같은 사건’이라는 이야기 소재를 바탕으로 한 ‘Square’(2018), 소수민족과 그룹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제어했던 네덜란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발언’의 자유를 다룬 ‘No False Echoes’(2008) 같은 작품이 있는 ‘블록 07’을 비롯해 태국 북부 지방

라이의 소수민족 출신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속한 ‘Akha’라는 유목민들의 문화를 강렬하게 표현해낸 작품 ‘Ayaw Jaw Bah’(2019), ‘자이언트 아프리카 랜드스네일(Giant African Landsnail)’이라는 달팽이가 대만인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여정을 보여주는 ‘Snail Paradise’(2019), 생체계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종과 역사 등을 엮은 ‘Reincarnations’(2019) 등 다국적 배경을 지닌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예술 세상을 만날 수 있다. 건물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라살 예술대학(LASALLE College of the Arts)도 비엔날레의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길먼 배럭스에도 ‘Social Organism’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 하피즈 란차잘레(Hafiz Ranchjale)가 ‘책’을 소재로 만든 흥미진진한 작품 ‘Buku’(2003)를 비롯해 이번 비엔날레 커미션 중 하나인 ‘The Mamitua Saber Project’(2019) 등을 접할 수 있다. 한 지역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개인의 역사와 갈등, 감수성과 관계하는 단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소영 작가의 경우 이곳에서 7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해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 전시했던 영상 작품으로 서울, 상하이, 싱가포르 등 ‘정부 주도로 급성장한 아시아 도시에서 촬영한 ‘Gooseberry’를 비롯해 이와 연결되는 영상, 그리고 드로잉 작품으로 구성했다. 아시아 문명 박물관(Asian Civilisations Museum)에서는 3명의 작가를 중심으로 한 전시가 진행 중이다. 다인종 사회에서의 언어를 소재로 세대 간의 소통 등을 재치 있게 다룬 말레이시아 작가 오쿠이 띠랄(Okui Lala)의 ‘National Language Class: Our Language Proficiency’(2019), 뉴욕에서 활약 중인 젠리우(Jen Liu)의 ‘Pink Slime Caesar Shift: Gold Edition’

(2015~19), 로런스 렉(Lawrence Lek)의 세계와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미디어 작품 ‘2065’(Singapore Centennial Edition, 2019)를 선보인다.

늘 그렇듯 색다른 흥미를 선사하는 장외열전 미술이든 디자인이든 공예든 규모 큰 문화 예술 축제가 열리는 도시에 가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장외’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주 무대의 전시가 뒤편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콘텐트가 품은 색다른 면모, 그리고 종종 장소가 주는 매력 덕분에 참신한 감흥을 느끼게 된다. 싱가포르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이기도 한 마린 베이 샌즈에 있는 아트사이언스 뮤지엄(ArtScience Museum)이 바로 그런 장소로 꼽힌다. 피어하는 연꽃을 연상시키는 외관부터 단번에 시선을 잡아끄는 이 미술관이 이번 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시작한 ‘(2219: Futures Imagined)’는 특유의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센스’를 담은 전시로 2백 년 뒤의 세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제목으로 차용했다. 연극의 1~5막처럼 다른 소주제의 공간을 따라 ‘체험’하는 여정의 짜임새가 흥미롭고, 어맨다 행(Amanda Heng), 슈퍼플럭스(Superflux), 우리나라의 젊은 작가 바리사, 허산 등이 참여했다. 이 밖에 SMU 드 스uantio 갤러리(SMU de Suantio Gallery)에서는 지난해 그래미 어워드를 받은 전천후 아티스트인 로리 앤더슨과 신치엔후앙(Hsin-Chien Huang)의 가상현실(VR) 작품 ‘The Chalkroom’(2017), 럭셔리 유통업체 아워 글래스(The Hour Glass)의 플래그십 매장 말메종(Malmaison)에서는 마크 뉴슨, 벤도, 대니얼 아삼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의 한정판 협업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글고영현



Interview with



1 전망영, 집합(Aggregation) 10 - JLO20 Red(2010),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44.9x76.8 inches/114x195cm, Courtesy of Sundaram Tagore Gallery 2 2019 싱가포르 비엔날레(SB2019)의 전시 장소 중 하나인 길먼 배럭스(Gillman Barracks)에 있는 손다람 타고르 갤러리(Sundaram Tagore Gallery)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망영 개인전. Photo by SY Lee 3 전망영, 집합(Aggregation) 16 - NV032(2016),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59.4x59.4 inches/151x151cm, Courtesy of Sundaram Tagore Gallery 4 손다람 타고르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전망영 작가의 전시 풍경. 싱가포르 비엔날레 개막 주간에 맞춰 시작된 이 전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개최된다. Photo by SY Lee 5 여러 갤러리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아트 클러스터 길먼 배럭스. 지난해 11월 22일에 막을 올린 싱가포르 비엔날레는 오는 3월 22일까지 계속된다. Photo by SY Ko

Chun Kwang Young

at Gillman Barracks

포장 미술은 내용보다 외면을 중시하는 현대적 양상을 잘 보여주는 현대미술 분야 중 하나다. 부부 미술가 크리스토프와 잔클로드(Christo and Jeanne-Claude)는 포장을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정립한 대표적인 작가 부부이고, 중국 작가 쟡판즈는 내면을 볼 수 없는 포장 조각을 만들었으며, 우리나라 작가 김수자는 '보따리'라는 용어를 현대미술계에 입력시켰다. 전망영은 또 다른 형태의 포장미술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다. 싱가포르 비엔날레 개막과 동시에 길먼 배럭스(Gillman Barracks)에 있는 손다람 타고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본다.

1990년 중반부터 한자로 스티로폼을 싸는 독특한 작업인 '집합(Aggregation)'을 시작한 전망영은 그 독창성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2001)로 선정되었다. 그 후로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여러 지역의 주요 미술관에서 꾸준한 전시를 가면서 활약해왔다. 지난해에는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뜻깊은 개인전을 가지기도 했다(2018. 11~2019. 7). 이 전시는 미국 오리건주의 조던 슈니처 미술관(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에서 순회전 형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 현재 싱가포르의 손다람 타고르 갤러리(Sundaram Tagore Gallery)에서도 개인전이 진행 중이다(2월 1일까지). 한미교류 세계 무대에서 그의 존재감이 부쩍 커진 느낌이다.

나의 뿌리,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비엔날레(SB 2019) 개막 시기에 맞춰 열려 더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불러모으고 있는 전망영의 전시에서는 그의 대표작 '집합' 시리즈가 공간을 차지했다. '집합'은 힘겨웠던 13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1989~1982에서 얻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연속이다. 필자와 나는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에서 아무리 사탕 그림과 비슷한 유형으로 작업해도 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1억 명이 넘는 전 세계 미술가들과 구별할 수 있는 나만의 독창성이 무엇이었나?'라는 커다란 질문을 안게 됐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 한 국으로 역유학을 왔다고, 그리고 작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나의 이야기, 나의 뿌리, 나의 조상을 찾아 전국의 민속박물관을 돌아다니는데, 특히 온양민속박물관은 서른 번 이상 방문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방법론으로는 '보자기'를, 미테르(재료)에서는 '한지'를, 철학적으로는 '파르마르(약과 독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의 중의성을 찾게 된다. 우선, 작가는 한국의 독특한 래핑(wrapping)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탕은 박스 문화예요. 1백 온스 박스에 10온스 박스를 10개 넣어서 덮으면 모양 좋게 딱 닫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자기 문화'입니다. 사탕간 '말이' 친정 왔다가 다시 시댁으로 갈 때, 친정어머니는 10온스짜리 오보레 10개를 넣어 딱 보기 좋게 만들었다지요. 애매하고 아쉬운 마음에 10온스짜리를 하나 더 넣고, 뒤틀어기는 말을 쫓아가 다시 하나를 넣어서 보자기 모양이 피러지고 이 상해집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개성이요 '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그는 약재와 약침 봉지를 통해, 미테르인 한지와 미술 철학인 '파르마르'의 중의성을 찾게 된 과정을 얘기 한다. "나는 강원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큰할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는데, 갖가지 약재를 담은 봉지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 약봉지에서 약초를 꺼내 제정한 약을 정성껏 한지로 싸 뒤 약침 봉지 뒷면에 일러보지도 못한 초서로 글을 씁니다. 이를 5개 정도 모아서 끈으로 묶어주면, 아부네들이 아주 정성을 다해 받아주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지요." 그는 큰할아버지가 한지로 약재를 싸듯 삼각형 스티로폼을 한지로 싸고, 큰할아버지가 약침 뒤에 글씨를 쓰고 이를 다시 끈으로 묶어놓듯 이미 끝까지 있는 고서체를 한지 끈으로 정성껏 묶는다. 이를 특별히 제작한 캔버스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를 섬세하게 붙인 뒤, 큰할아버지가 아부네들에게 전달하듯 관람객들에게 제시한다.

'집합' 시리즈와 포장 미술의 중의성

그렇다면 왜 '집합'이라는 작품명을 붙인 것일까? '작업에 사용된 한지는 1백여 년 된 고서에서 나온 것들로, 거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서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나에게 도달할 때까지, 이 책이 거쳐간 수많은 사람의 손때와 자국이 묻어 있었지요. 그 집합체인 내 작업 앞에 서면 관람객들은 (작품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고서가 거처간 남부노스의 애환, 생활 등 모든 것을 놓아놓았다는 의미와 한국의 얼을 한지로 싸는 의미에서 '집합'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설명이다. 그렇게 '집합'은 '보자기'나 '한지' 봉지 혹은 한약침 포장의 재원을 넘어 실험적이고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창의적 조형물이 되었다.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수많은 비유를 내놓는다. 한 쪽의 '수화'를 연상하기도 하고, 광물체나 우주의 낯선 행성을 연상하기도 한다. 작가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의 포장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보따리(혹은 보자기)'는 고전적 의미에서 여성적(감성적인) 것으로 1백 온스를 담아할 것에 10온스짜리를 하나 더 넣으며, 형태와 관계없이 화제의 정을 담는다. 하지만 그의 작업 '집합'은 거기에서 보면 보자기 보다는 내용물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담겨야 하는 남성적(이성적인) 약봉지다. 보자기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적혀 있지 않아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라, 약봉지는 무엇이 안에 들어가고, 어떤 용도(집합)에 쓰여야 하는지 명료한 물건이다. 반면 멀리서 보면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적인 '보자기' 형태가 된다. 한국 미술에 있어서이고 다양한 다색화(단청, 불화 등)와 모든 색을 다 품은 검은 먹으로 표현되는 단색화(문인화, 산수화)가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문인화/민화, 단색화/다색화, 약봉지/보따리' 등처럼 한국 문화와 예술은 2개의 축을 오가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이원론처럼 전자가 후자를 억압하는 대립 관계나 종속 관계의 존재론이 아니라, '올과 양처럼' 시공간적 조건에 따라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가까워지는 관계론이다. '집합'이 보자기와 약봉지의 특징을 다 지니고 있듯이 말이다. 포장 혹은 포장 미술의 특징은 그 안에 상반되는 여러 가치를 담을 수 있다는 '다의성'을 품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망영은 포장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내면(보자기)을 외면으로 확장한다는 점(약봉지)에서, 즉 내면의 외면화라는 점에서 다른 포장 미술가들과 구별되는 것 같다. 글 심은택(미술비평·기획가) edited by 고성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볼가리 비엔날레 링** 장영환 아름다움을 간직한 로마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가져온 건축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의 링, 유려한 나선형 화이트 골드 밴드 사이에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한층 더 빛난다. 2천2백만 원대. 문의 02-2056-0171 **파이에 샌드아트 링** 성세한 세상이 곧바로 불꽃의 핑크 골드 링 위에 약 4.93카럿에 달하는 총 2백5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해 태양처럼 눈부신 빛을 발한다. 측면은 햇살을 형상화한 기하학적 모티브로 장식해 인텔리겐스를 닮았다. 3천2백만 원대. 문의 02-540-2297 **타미나 1837 메이카스 화이트 체인 브레이슬릿** 타미나의 전통을 상징하는 할로루웨이 공방의 심바 스키시, 스텝링, 송다링 테크닉 등에서 영감을 얻어 실용적인 하드웨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요소를 차용했다. 콜로세움에 대한 열로 골드 포인트와 NY, 'AG925', T & Co. Makers 등의 상징적인 인그레딩이 감각적이다. 1백30만 원대. 문의 02-547-9488 **반올림 리드 아메리칸 링** 아메리칸풍 부한 기술적 노하우와 재치 넘치는 창의성을 살려서 정교한 골드 비즈 장식이 돋보인다. 수작업으로 폴리싱을 마친 매끈한 옐로 골드 비즈 세 줄을 이어 붙인 듯한 기하학적 디자인이 돋보인다. 3백만 원대. 문의 00798-852-16123 **카르미에 클라쉬드 가르미에 브레이슬릿** 장영환의 아름다움에서 탈피해 강렬한 개성, 과감한 미학적 코드를 보여주는 클라쉬드 가르미에 컬렉션. 오차 없는 비율로 총총하게 세팅한 스타드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다이아몬드 장식한 곡면의 움직임이 우아한 매력을 더한다. 3천만 원대. 문의 1566-7277 **타사키 사지 링** 변화무쌍한 파도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역동적인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링, 강렬하고 날렵한 라인이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장식은 하얗게 부서지는 월로라를 상징한다. 7백10만 원대. 문의 02-3461-5558 **스티브 웨스터 메그-미켈트 파베 펜던트** 화려한 새 깃털을 형상화한 화이트 골드 펜던트에 1.55카럿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불드한 펜던트는 마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며 착용자의 신체 곡선에 맞춰 화려한 빛을 발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2231-1592 **앤디터 아메이**

Be Bold,
be beautiful

과감한 동시에 우아하고, 강인한 동시에 유연하다. 대담한 아름다움을
동시대적인 방식으로 담아낸 볼드 주얼리 피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Romeo & Juliet

셰익스피어의 러브 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이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재탄생했다. 파리에 이어 두 번째로 시드니에서 선보인 이 컬렉션은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들을 사로잡았다.

“오 줄리엣(Juliet), 그대 나만큼 기쁘나요?
그 기쁨에 대한 찬사를 그대의 숨결로 달콤하게 해주오,
이 귀한 만남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 얻는,
그 아직은 표현되지 않은 행복을 풍요로운 음악처럼 펼쳐주소.”
_로미오와 줄리엣, 윌리엄 셰익스피어(Romeo and Juliet, William Shakespeare), 2막 6장

반클리프 아펠이 표현한 영원한 사랑의 열정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독보적인 우아함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인 정신으로 언제나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다채로운 이슈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반클리프 아펠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이번 여름 반클리프 아펠이 선택한 주인공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너무나 유명한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반클리프 아펠의 유려한 젤스톤과 섬세한 세팅으로 다시 태어났다. 구상적인 스타일에서 추상적인 스타일에 이르는 1백여 개가 넘는 유니크 피스들 구성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장신구 및 의상과 함께 유명한 발코니 장면, 어스푸레한 새벽, 새들의 지저귀, 베로나의 정원과 건축물이 어우러지며 작품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최고경영자 겸 회장인 니콜라 보스(Nicolas Bo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로미오와



1, 2 지난 11월 시드니에서 모델들이 착용한 로미오와 줄리엣 컬렉션. 3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발코니 장면은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 이 클립(clip)은 질 보이지 않는 무늬까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4 베로나의 발코니에 대해 찬사를 담은 로미오와 줄리엣 클립(Romeo & Juliet Clips). 사랑을 테마로 한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아드미러블한 주얼리다. 5 연인들에게 사랑을 담은 로미오와 줄리엣 클립(Romeo & Juliet Clips). 사랑을 테마로 한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아드미러블한 주얼리다. 6 러브즈 패스 브레이슬릿(Lovers' Path Bracelet)은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희망을 상징한다. 3 개의 콜롬비아산 에메랄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7 버드 오브 러브 아이링(Bud of Love Earrings)은 르네상스 시절 여성이 목에 두르던 정교한 블랙 벨벳 리본 팬던트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8 이벤트가 열렸던 시드니 근교의 맨리(Marilyn) 해빈이 나타내보이는 우서 깊은 세인트 패트릭 영지(Saint Patrick's Estate),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9, 11 활적 가능한 클립의 로즈 캐펠릿 네크리스(Rose Capulet Necklace), “장미꽃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감미로운 향기는 그대로인걸.” 줄리엣이 로미오가 몬테규 가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되뇌는 장면 속 대사. 이 유명한 구절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 10 레티쿨라(Reticella) 팬던트 중앙의 모티브로도 활용 가능한 이 여성. 12 버니안 루비와 모브 사파이어가 돋보이는 테사라(Tesara) 네크리스는 캐펠릿과 몬테규 가문의 화합을 상징한다. 13 줄리엣의 집 창문에서 영감을 받은 줄리엣 윈도우(Juliet's Window) 아이링은 레드 루비를 사용해 캐펠릿 가문을 상징화했다. 14 이탈리아 르네상스 당시의 주얼리 모티브를 따온 라. 리. 나. 토(Rinascimento, 르네상스) 롱 네크리스. 15 총 4색 51개 컬러의 사파이어 비즈로 구성된 자르다노 네크리스(Giardino Necklace)는 중앙에 위치한 81.07캐럿의 노부신 콜롬비아산 에메랄드로 화려한 매력을 선사한다. 16 르네상스 시대에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하여 결혼 선물로 활용하던 과잉진 석유를 재해석해 제작한 그레. 트(Grenata) 클립.

줄리엣을 컬렉션 테마로 선택한 것은 여러 이유에서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문학은 메종에 영감을 불러오는 주요 원천이죠. 우리는 이미 2003년에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를 기념하는 미드서머 나이트 드림 컬렉션(Midsummer Night's Dream Collection)을 선보였습니다. 메종이 지난 수년간 작품 활동을 지원해온 유명 안무가 벤자맹 밀레피에(Benjamin Millepied)가 최근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찬찬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셰익스피어 마스터피스는 새로운 테마 컬렉션의 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이 주얼리와 댄스, 음악 및 비주얼 아트를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창의적인 영감을 주고받는 파트너십은 반클리프 아펠 메종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문학, 댄스, 비주얼 아트 등 모든 분야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은 반클리프 아펠의 다양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완성하곤 한다. 시드니 교외의 로맨틱한 정원에서 펼쳐진 로미오와 줄리엣 하이 주얼리 컬렉션 쇼는 화려한 컬러의 젤스톤, 기하학적 구조와 곡선의 하모니, 다양한 스톤 커팅과 세팅 기법, 컬러를 이용한 입체감과 원근감, 은은한 그라데이션 등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자태로 모든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반클리프 아펠이 표현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의 언어, 그 시적이며 몽환적인 아름다움에 취하며, 반클리프 아펠 메종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빠져든 시간이었다.



“로미오와 줄리엣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운명적인 만남이죠”

시드니에서 만난 반클리프 아펠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장 니콜라 루싱거(Nicolas Luchsinger)에게 듣는 로미오 & 줄리엣 하이 주얼리 컬렉션 이야기.

Q 로미오와 줄리엣 컬렉션의 전체 제작 과정이 매우 궁금합니다. 컬렉션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요? 메종은 깊은 우정을 나눈 많은 이들이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안무가 벤자맹 밀레피에입니다. 뉴욕 빌레단의 무용수로 활약하기도 한 그는 파리 오페라 빌레단(Opera of Paris)의 안무가였고, 현재는 자신의 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자맹 밀레피에는 1966년 러시아 안무가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에게 영감을 얻어 반클리프 아펠과 조지 발란신의 유명한 합작 작품, 발레 주얼(Jewels)을 재해석해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발레 주얼은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를 주제로 한 3부작입니다. 몇 년 전, 벤자맹 밀레피에가 새로운 인무를 기획하면서 그는 메종의 CEO인 니콜라 보스에게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세르게이 프록코피예프의 발레 작품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메종도 로미오와 줄리엣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발레와 벤자맹 밀레피에의 인연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연결된 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원작에서 러브 스토리에 대한 영감을 얻은 메종은 이를 바탕으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로미오와 줄리엣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에서 예술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등장하는 러브 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스토리의 배경인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유럽과 이탈리아의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메종은 이 시대의 유명한 유화 작품을 모두 참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렉션에 영감을 준 요소는 바로 이탈리아의 도시 베로나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토리가 탄생한 베로나는 르네상스 건축 스타일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주 매력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컬렉션을 구상하는 하이 주얼리는 베로나의 건축학적 요소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Q 이번 컬렉션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번 로미오와 줄리엣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스는 작은 비둘기 모양 스노우 도브(Snowy Dove) 클립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보면, 로미오가 줄리엣을 비둘기에 비유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는 사랑스러운 피스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다른 한 피스는 러브즈 패스(Lovers' Path)라는 3개의 에메랄드를 새겨놓은, 아주 인상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브레이슬릿입니다. 이 피스를 완성하는 에메랄드의 아름다움이 감동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메종의 스톤 구매 담당자가 3개의 스톤을 한 번에 구매하지 않았고, 하나를 먼저 구매하고 뒤이어 또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서로 다른 스톤을 3개나 보유하게 되었는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Q 이번 로미오와 줄리엣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점을 말씀해주세요. 메종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나요? 메종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메종 장인(Mains d'Or, 명도르)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탄생한 아름다운 디자인, 최고의 스톤, 그리고 메종만의 아름다운 세계관에 의해 탄생합니다. 따라서 메종이 탄생한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메종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작품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종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선보이면서, 메종의 핵심적인 가치는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Q 시드니에서 하이 주얼리 이벤트를 개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반클리프 아펠이 탄생한 파리에서 처음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컬렉션을 위한 두 번째 도시 시드니를 선택했습니다. 2년 전 메종이 시드니 부티크를 오픈한 이후, 시드니는 메종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노부신 태양과 반짝이는 푸른빛 바다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드니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메종의 희망을 표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Q 반클리프 아펠의 맥에서 이번 컬렉션이 갖는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에 집중했습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러브 스토리로 시작된 메종입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셰익스피어의 러브 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영감을 받고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탄생하게 된 것은 어쩌면 정말 운명적이고 같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INTERVIEW

healing Scents

찬 바람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줄 포근하고 향기로운 제품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그참파 인센스 스틱 #아유르베다 세계적인 명상가들이 애용하는 제품이다. 우드 향과 알로에베라 향이 어우러진 산뜻하고 시원한 향. 15g 가격 미정. 문의 070-7740-7778 나그참파 인센스 홀더 #요트형 인도 장인이 수직업으로 제작했다. 요트 형대 수납공간에 다양한 인센스를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장점. 가격 미정. 문의 070-7740-7778 다템크 아유르베다 디퓨저 #34번가 생제르망 모래시계의 원리를 적용한 제품으로 향기를 투출하면 약 1시간 동안 고르게 방출한다. 벨벳이 부드러운 샌들우드와 달콤한 바닐라, 핑크베리의 신선함이 어우러진 길미로운 향. 75ml 24만원. 문의 02-3479-6049 조 알론 단단 #마르 앤 톱카 스킨트 싸리우드 인센스 디퓨저 나미비아 머루나무 수액과 톱카 열매, 아몬드와 바닐라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향으로 2편하게 공기를 가득 채울 수 있다. 165ml 14만 천원. 문의 02-3440-2750 르 라보 뮌 12 홀 프래그런스 한 번의 팜팡팡으로 주변 공기를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스프레이형 향수. 침구나 커튼, 러그, 전구 등에 뿌리면 소나무 숲을 산책하는 듯 산뜻하고 상쾌한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100ml 15만7천원. 문의 02-3440-2591 스타 마리아 노벨라 칸델라 퍼퓸에이트 #안젤 디피렌체 1966년 상큼하고 은화한 과일 향이 매력적이다. 연속 사용 시 약 5시간 태울 수 있다. 300g 6만3천원. 문의 02-6002-3133 불리 1803 알라바스트 스톤 디퓨저 #이탈리아 칸타레 상자에 담긴 퇴적암에 향유를 떨어뜨려 사용하는 스톤 디퓨저. 그레이프푸르트와 파슬리, 샌들우드와 향. 무가 어우러져 상큼로운 여름 나뭇잎이 떠오른다. 11만8천원. 문의 1544-5114 씨호 트루몽 릴라 캔들 #그레이트 인터리어 오브제에도 손색없는 멋스러운 제품. 연소 시 공기 중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 8x15cm 10만5천원. 문의 02-3449-4523 불리 1803 레 부지 퍼퓸에 향초 #수미 히노키 씨, 콩, 코프라 등 자연 그대로의 원료로 제작한 향초 세트. 유행과 히노키 나무, 사시프라스 향이 늦어메기과 나리고가들이 사용하는 시기를 연상시킨다. 300g 21만5천원. 문의 1544-5114 에디터 아데미.

아니스네트 코스메

go Fresh

다채로운 무드의 체크 패턴과 플라워, 애니멀 프린트의 향연,
독특한 효과를 더한 데님과 메탈릭 소재, 사랑스러운 보 & 리본
디테일까지. 2020년 리조트 & 크루즈 컬렉션을 정의하는 키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 11.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던한 로고 장식과 클래식한 하운즈투스 체크가 어우러진 울 소재 'J'Adior' 펌프스 1백30만원대 디올. 금주한 아이보리 색의 리본 트라밍의 화이트 펠트 햇 1백34만원, 컬러풀한 원사로 표현한 체크 패턴과 라이언 헤드 토글 디테일이 멋스러운 트윈드 재킷 4백만원 구찌. 반트지한 무드로 연출한 워셔드 데님 소재 빅 플랩 백 가락 미정 샤넬. GG 프린트를 그래픽적으로 해석한 리본 디테일 실크 셔츠 가격 미정 구찌. 메탈 효과를 극대화한 골드 스트레치 샌들 1백55만원 보테가 베네타. 청카한 미러 소재 힐이 독특한 플라워 프린트 플랫 플 슈즈 가격 미정. 크고 작은 데이지 꽃 패턴이 사랑스러운 무드를 베끼는 캐버딘 샌들 1백20만원 모두 미우미우. 캐츠 아이 프레이밍의 타이거 프린트 선글라스 40만4천5백원 생 로랑 by 인드니 바카렐로. 블랙 & 화이트 애니멀 패턴 브이슬링 백 3백74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자연스럽게 접힌 질감이 돋보이는 포일 램스킨 소재로 완성해 볼품없을 강조한 메탈릭 램스킨지 파우치 1천1백43만원 보테가 베네타. 에디터 아데미

디올 02-3480-0104 구찌 1577-1921 샤넬 080-200-2700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미우미우 02-3218-5331 생 로랑 by 인드니 바카렐로 02-549-5741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51-4653



아니스네트 코스메

가장 모던한 패브리, 트위드 _by Chanel

1920년대 중반 기브라델 샤를은 남성복에만 사용하던 트위드 소재를 여성복에 적용했고, 1983년 샤넬 하우스의 수정이 된 칼 라가펠트는 여기에 새로운 생광택을 불어넣었다. 그는 컷과 비율에 대한 백과사전급 지식과 특유의 헌신함, 그리고 위트를 더해 트위드 소재를 재해석했고, 시간이 흘러도 모던하고 아름다운 소재로 기억되는 마법의 옷을 지어냈다. 이제 트위드 소재의 세 번째 캠페는 버지니 비아르의 손에 닿았다. 핑키 울 트위드 베스트와 재킷, 레드 · 블루 · 핑크 컬러 울 트위드 재킷 모두 가격 미정 **샤넬**.



it signature

척 보면 딱 알 수 있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것. *photographed by kim cham*



다양한 체형을 생각한 코트 _by Maxmara

막스마라 창립자 이글레 미라모티의 증조모는 의상실용, 모친은 재단과 재봉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그가 선택하고 집중한 것은 다양한 연령과 체형의 여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코트. 마담, 라브로, 엘리아, 테디 등 막스마라의 유명한 코트 중 마누엘라는 여성들을 막스마라에 입문시키는 코트로 유명하다. 자털과 토티 가죽을 사용해 캐멀 헤어의 부드럽고 독특한 결을 살렸고, 퐁티노 스타일로 마무리했다.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다. 모델이 입은 마누엘라 캐멀 코트 3백38만원, 송이갠지움 배부트 레더 부츠 2백28만원, 하늘을 날고 있는 마누엘라 브라운 코트 3백38만원, 라브로 캐시미어 코트 7백78만원 모두 **막스마라**.



전통을 지키는 트렌치코트
-by Burberry

버튼 없이 벨트로 입을 여는 혁신적인 디자인의 개버딘 코트는 방수 기능을 위해 섀트미터 단위로 1백 번 이상 차질하게 직조했고, 3중 보강 차단해 통풍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군 장교를 위해 건강, 허리피, D-링 등 기능적 요소를 적용한 것이 핵심 디자인 요소가 되며 더더욱 사랑받은 지 1백 년이 넘었다. 현대 기술 덕분에 많은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음에도 버버리는 아직까지도 한 발의 트렌치코트를 탄생시키기 위해 캐슬퍼드 장인들이 고집하는 1백 단계가 넘는 공정을 거친다. 한 벌 제작 기간은 3주다.

신금라스 30만원대 버버리 by 록스타카, 헤이색 코트 개버딘 트렌치코트 3백55만원, 아이키브 프린트 재킷 2백39만원 모두 버버리.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하는 나일론
-by Prada

-by Prada

군용 낙하산과 텐트에 쓰이던 방수 나일론을 사용한 프라다 토트백은 미니멀리즘 유행과 맞물려 1980~90년대까지 큰 주목을 받았다. 1994년에는 이 소재를 의류에 적용한 라네아 로사 라인까지 출시하기도. 최근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에코닐(ECONYL®) 소재를 사용한 리-나일론(Re-Nylon) 프로젝트를 론칭했다. 에코닐은 낚시 그물, 방직용 섬유 폐기물 등에서 수집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정화 공정을 통해 얻는 나일론 소재, 브랜드가 사용하는 기존의 나일론을 2021년 말부터 모두 에코닐로 전환하려는 공격적인 목표를 가진, 안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프로젝트다.

신금라스 40만원대 프라다 by 록스타카, 라버서를 카무플라주 나일론 재킷 2백20만원대, 모달이 앞뒤로 멘 테크니컬 패브릭 배낭 각각 2백600만원대, 블랙 카메라 백 1백300만원대, 아이보리 벨트 백 1백40만원대, 보온병과 케이스 가격 미정, 아이보리 코트 샵스 20만원대, 샌드 스니커즈 1백20만원대 모두 프라다.





캐시미어의 연금술 - by Loro Piana

마법과 과학의 교차점이라 불리는 연금술. 로로피아나의 캐시미어가 딱 그렇다. 몽골 목축인들의 자연과 조화에 대한 사랑, 한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위에 고귀한 섬유를 알기 위한 로로피아나의 끊임없는 연구와 최신 기술을 한 스로씩 더했다. 섬유가 살아 되고, 실이 직물로 탄생하며, 직물이 또 다른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변형되는 끊임없는 연금술.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은 이 과정을 찍지 제 감독은 조심스레 영상에 담았다.

몽골의 극심한 고원지대에서 자란 새끼 염소를 조심스레 빗질해서 얻은 베이비 캐시미어 펠트 3백30만원대, 모델이 착용한 베이비 캐시미어 니트와 캐시미어 니트 모두 로로피아나.



작품으로 태어나는 가죽 - by Hermès

엄선한 최상의 가죽만을 재단 공방 장인들의 작업대에 놓도록 하는 것부터가 에르메스 가죽 제품 메이킹의 시작이다. 숙련된 장인들은 가죽을 들여다보는 순간 컬러의 균일성, 마블링, 척추 부분의 주름 등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페가줄조차 새로운 시대를 위한 로맹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펠피 (Petit H) 라인은 소재에서 출발하는 공방에서 만들어진다. 남은 자투리 가죽의 결함을 포용하고 보완해 줄남기 손잡이나 이빨, 양초 받침, 가구 등 새로운 오브제로 태어나게 한다. 에르메스의 가죽은 아무리 작아도 쓸모가 있다. 모델이 입은 송아지가죽 점프수트 2천5백만원대, 송아지가죽 송아 부츠 3백만원대, 들고 있는 백과 모자, 의자, 담요 모두 에르메스.



계산된 완벽한 테일러링
by Alexander McQueen

감정을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를 담은 알렉산더 맥퀸은 누가 뭐라 해도 천재였다. 그가 수습생으로 일했던 영국 사범 학교 중심으로 이어져온, 비스포크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테일러링 노하우는 허우스의 뿌리이자 정체성. 차수를 재는 것부터 패턴을 뜨고 머슴잡이처럼 손바느질을 하고 재봉과 다림질을 하는 그 모든 것이 테일러링에 포함된다. 시를 쓰듯 옷을 지었던 그의 감성은 사라 버트 이 아이벌은 지 10년째인 지금도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가는 혼조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알렉산더 맥퀸의 모든 옷은 예술 공예와 실용, 전통과 현대, 감성과 이성 사이 어디쯤을 떠나는 듯하다. 울 실크 롱방 로즈 드레이프 테일러드 티셔츠 재킷 가격 미정, 상투리에 앙브로이 다리 캠프 스킨 포링 글러즈 4백55만원, 재인 하이스 가격 미정 모두 알렉산더 맥퀸.

헤어 오종오
메이크업 공혜연
모델 소유정
어시스턴트 조소희
에디터 김라윤

사설 090-200-2700
막스미라 02-511-3935
버버리 090-700-8800
프라다 02-3218-5331
로로피아나 02-546-0615
에르메스 02-542-6622
알렉산더 맥퀸 02-2118-6171
몽클레르 02-514-0900
룩스타가 02-501-4436



작품과도 같은 패딩 by Moncler

탄탄하고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접이식 텐트와 덮개, 창닝 등에서 시작한 몽클레르는 글로벌한 현대 도시인들의 요구를 파악하며 현재 총 117개의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눈여겨볼 것은 다양한 이티스트들과 협업해 여러 시선으로 해석한 몽클레르 소개하는 9개의 몽클레르 지니우스 컬렉션.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려내는 능력, 이에 전략을 다하는 열정적인 자세와 인내, 그리고 독특하고 영동하게 보이기도 하는 천재성을 담은 컬렉션으로 매년 창조적인 작품과도 같은 옷으로 이슈를 만들고 시선을 사로잡는다.

울 니트 모자 54만원 **4 몽클레르 시몬 로샤**, 아프리카의 직물을 연상시키는 패턴을 쿠튀르와 결합했다. 모자 달린 재킷과 폴 스킨트 모두 가격 미정 **1 몽클레르 피에르파올로 피치올리**.

Style 조선일보 stylechosun

#스타일조선(stylechosun official)



instagram.com/ stylechosun

평범한 일상 속, 보다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꾼다면 품격 있고 감각적인 매거진 <스타일 조선일보>의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소통하세요. <스타일 조선일보>는 단순히 럭셔리한 스타일과 정보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품격과 지식, 럭셔리, 그 이상의 취향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까지 함께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가 바로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facebook.com/
stylechosunofficial



blog.naver.com/
style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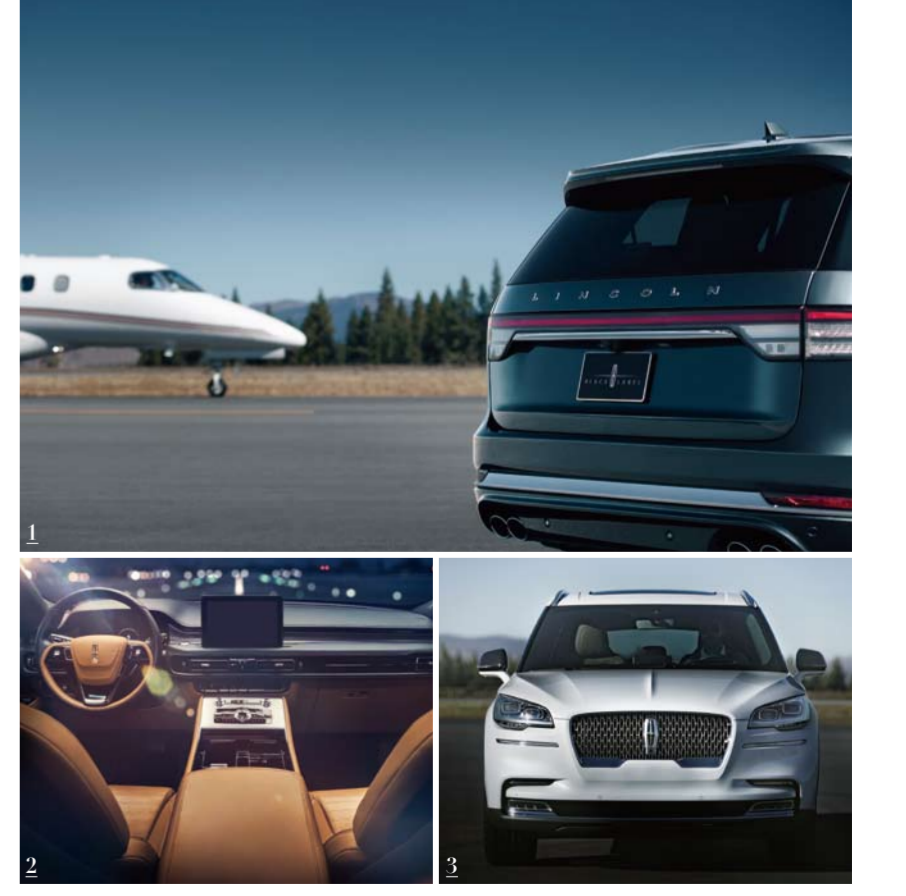


american Luxury SUV

대형 SUV의 원조는 미국이다. 그만큼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은 오랜 시간 대형 SUV에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아메리칸 럭셔리'의 대표 주자 링컨이 새롭게 선보인 '올 뉴 에비에이터'가 가장 완벽한 대형 SUV라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SUV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열풍을 넘어 완벽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부터는 더 크고, 더 고급스러운 SUV가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2020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의 7인승 대형 SUV가 한국형 비행기 티켓을 끊고 오메발랑 출시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스타트를 끊은 것은 링컨 올 뉴 에비에이터(이하 에비에이터)의 몫이었다. 지난해부터 출시일이 물던 기대 차종이다. 한국 출시가 늦어진 건 미국 등 북미에서 그야말로 '출판'을 기록한 까닭이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인력한 승차감,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고성능 엔진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링컨은 '아메리칸 럭셔리'의 대명사로 불린다. 아메리칸 럭시는 유럽에서 말하는 럭셔리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유럽의 럭시가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한정된 문화라면 아메리칸 럭시는 고급스럽지만 실용적이고, 특수 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안락하게 가질 수 있는 대중적인 것을 지향한다. 미국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인 칼프렌이나 캘빈 클라인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링컨 에비에이터의 디자인에서는 아메리칸 럭셔리의 정수가 느껴진다. 미국적 SUV의 풍모를 그대로 갖췄으며, 존재감으로 따지면 작수가 없을 정도다. 당당한 차체와 간결한 선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이곳저곳을 구부러지지 않고 정공법으로 차체를 표현한 것도 특징이다. 웅장한 앞모습에서는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차량 전면의 그릴부터 보디와 루프까지 이어진 라인으로 위풍당당한 차체에 날렵함을 더한다. 앞면은 얇아도, 반듯한 원도 라인이 광무니까지 뻗어나 남다른 존재감을 뽐낸다. 핵심 콘셉트로 내세운 '고요한 비행(Quiet Flight)'에 맞게 비행기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도 눈에 띈다. 비행기 날개를 연상시키는 테일 램프와 항공기 타일을 닮은 역동적인 휠 디자인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자동차 회사가 자랑하는 고급스러움은 실내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넉넉한 실내 공간에서 대륙의 여유가 느껴질 정도다. 7명을 태우고도 골프 백 2개 정도는 거뜬히 싣는다. 2열과 3열 시트를 접으면 양방향 냉장고를 골격 잡아실킬 정도로 광활한 공간이 펼쳐진다. 반면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이다. 큼직한 돌출형 터치스크린을 중심으로 승용구와 각종 공조장치 버튼을 차례로 배치했다. 계기판에는 아날로그 속도계 대신 큼직한 12인치 디지털 모니터를 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질 좋은 가죽과 같이 살아있는 나무를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승차감이다. 미국 차라면 이래야 할 정도로 승차감이 나긋나긋하다. 특히 시트가 발군이다. 시트에 영감을 대차자인 안락함이 느껴질 정도다. 2열과 3열도 편하지만 운전석 시트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할 만하다. 열선, 통풍, 마사지가 능이 포함됐고, 무려 30개 방향으로 움직여 몸에 딱 맞는 운전 자세를 만들 수 있다. 가장 감동스러운 순간은 푸근한 시트에 앉아 음악을 들을 때다. 링컨 에비에이터는 레벨 울티마(Revel Ultima) 3D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장착했다. 스피커 개수만 무려 28개. 풍부한 스피커 덕분에 평범한 노래도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웅장한 사운드로 빙의한다. 더욱이 높은 볼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디오 진동을 최소화해 고속도로에서나 심지어 창문을 내렸을 때도 소리에 흔들림이 없다. 완벽한 승차감을 향한 링컨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급가야 첨단 장치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에비에이터에 장착한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에어 글라이드 서스펜션 기능이 대표적이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예상치 못한 구형이나 울퉁불퉁한 비포장 길을 만나면 이를 먼저 감지해 스스로 서스펜션을 조정하는 기능이고, 에어 글라이드 서스펜션은 차량 앞쪽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높낮이를 조절하고 뒤편을 조절한다. 링컨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눈 깜짝할 사이 초당 5백 번 도로를 읽으며 1백 번까지 설정 변경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첨단 기능을 적용했는데, 예를 들면 승차차 시나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릴 때 차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공개된 피규어는 3.0L V6 트윈터보. 최대 출력 405마력과 최대 토크 57.7kg·m의 넉넉한 힘으로 2인이 넘는 거구를 시원히 움직인다. 엔진과 맞물린 10단 섀프트 시프트(select shift) 자동변속기의 응답력은 빠르고 예민하며 정확하다. 하지만 더욱 시선을 끄는 건, 브랜드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이다. 에비에이터 그랜드 투어링이리 명명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가모터와 배터리를 결합했다. 전가모터만으로는 최대 30km/h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미국 시장 기준).



● sponsored by LINCOLN KOREA
사진 제공: 링컨코리아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티보〉에디터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한다.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위한 슈퍼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n jung hoon*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스 2020 뉴이어 칼렉션 애플리콜로우 탈탈 오르기霜 1월 3일 출시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칼렉션 중 피치 핑크 컬러 립밤, 약간의 핑, 은 였한 컬러, 그리고 부드럽고 촉촉한 보습감이 간조한 겨울 입술에 안성맞춤이다. 케이스 디자인도 마음에 든다. 3g 3인1천원대,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장라윤*

헬레나 루빈스타인 리 플라스티 리라바리 나이트 크림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가 탄력 밴드처럼 감싸는 감각적인 밴드지 텍스처라는 문구가 확 와 닿는다. 마스크는 어느데 분명 피부에 한 겹 보충되어 얇게 깔리는 느낌이다. 케치가 살짝 광 채나는 듯한 피부 연출 효과까지, 율거올랜이 크림에 나의 방울 발기기로 결정했다. 50ml 49만원대, 문의 02-6905-3389 *_by 에디터 장라윤*

비알레 슈프림 리페어 크림 피부조각과 유사한 구조의 미유, 마데란, 케비아 추출물, 플라틴 성분을 풍부하게 담았다. 피부에 닿으면 바로 녹아 부드럽게 발리는 베타딘 성분, 피부 속부터 촉촉하고 탄탄하게 가꾸주는 듯한 기분. 듬뿍 바르고 자연 다음 날 아침까지 피부가 보들보들하다. 50ml 12만원, 문의 02-720-7200 *_by 에디터 이지유*

실론 페이스리프엑스 플랙시디스 무엇보다 따끈따끈한 (최대) 4°C 열에너지가 얼굴에 닿으며 하루의 피로를 싹 풀아주는 느낌이다. 두 번째로 세안 후 맨 얼굴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너무 편하고, 세 번째로 작아서 휴대하기도 부담이 없다. 케어하고 싶은 부위는 1~5분간 집중하고,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10분 정도 쓰여주면 끝. 따뜻한 스프라 치료를 받는 듯하다. 280원천원, 문의 02-2138-6022 *_by 에디터 장라윤*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뉴 아이 리미티드 에디션 에디터의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 약병을 덮은 패키지에 갈색영이런 별칭으로 불리지만, 산뜻을 맞이해 신뜻한 레드 컬러를 입었다. 취미 해를 기념한 쥘리엔트 참상수도 양했다. 50ml 1525천원대, 문의 02-6971-3212 *_by 에디터 이지유*

데코르테 모이스트 리포스 마스크 에디터 피부는 실크처럼 새로운 부드럽린 야도 오일 한 방울 섞어 수분 크림을 잔뜩 바른면 하루 종일 촉촉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 요즘은 오후만 되면 무석무석, 리포스 수분 에센스 효과를 주는 이 마스크를 사용한 날은 피부 감촉만 좋기나 수분이 채워진 듯 확실히 느껴지는 다른 느낌이다. 딱 10분만으로 느낄 수 있는 지수력, 흡수력 모두 합격. 20ml X 6팩트 825천원대, 문의 080-588-3111 *_by 에디터 장라윤*

샤넬 비숍 에라피델 #글룬 리아트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려 윤기 넘치고 화사하게 빛나는 건강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스킨 텍스처와 얼굴 글룩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 8g 529천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이지유*

다올 프레스타지 르 마이크로-케어 드 로즈 200여 가지 영양 성분을 함유한 마이크로 필로 이베인 리프한 텍스처가 매력이다. 장맛빛의 마이크로 필 포물리는 마차하듯 원을 그리며 비르면 손끝에서 가볍게 녹아 유화 성분아 피부 속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다. 데칼리 스킨케어 마루리 단계에서 사용했는데, 슬리퍼 마스크로 사용해도 손색없이 만큼 보습과 진정 효과가 뛰어나다. 75ml 51만5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이지유*

리프라피 플라피플 레어 셀룰라 리아트 로션 새난 후 스킨 투닝한 얼굴과 목, 그리고 대퇴부까지 꾸준히 발랐다. 효과를 느끼기 시작한 건 3일이 지나면서부터. 피부에 생기가 돌고 탄력이 차오르는 느낌이다. 촉촉한 제형이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며, 은은하고 상쾌한 향이 기분까지 좋았다. 겹 부분에 자선 효과를 적용해 쉽게 아물 수 있다. 115ml 8226천원, 문의 02-511-8626 *_by 에디터 이지유*

겐조 플라워워터 에센스 로 쿠션 칼렉터 꾸준히 사랑받은 플라워워터 에센스가 색다른 타입으로 탄생했다. 겨울이 내렸던 콤팩트 패키지에 퍼뜨까지 갖춘 쿠션 타입 퍼프. 플레이스를 누르면 질 재형의 향수가 나오는데, 이를 퍼뜨에 묻혀 목, 팔, 손목 등에 바른다. 정확히 원하는 부위에 향을 다할 수 있고, 진소에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14g 529천원, 문의 080-344-9500 *_by 에디터 이지유*

골레드로 보네 리피안트 립 루미이저 #103 레즈 레드 광택이지만 답답하지 않고 달은 톤의 레드 립을 연출하고 싶은 아예에 추천하는 제품. 적당한 가법도 촉촉해 입술에 밀착되는 듯한 텍스처로 '멜팅 컬러 발이리라는 표현이 재력이다. 맛바르는 화상에 따라 비비드한 컬러감이 더욱 살아나 다양한 핑을 연출하게 용이할 듯. 1.6g 629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이지유*

반데르피제 하우트프렌즈 아노카도 바다밀크 자극으로 민감한 건조한 피부 탓에 좋은 성분을 담아 충분한 보습과 진정 효과를 제공하는 제품을 애용한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춘 바디밀크 오기너 뷰티 보먼드 반데르피제의 스킨케어 라인, 하우트프렌즈. 그중 드라마틱한 보습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디밀크는 방망이 공정을 영 안소 피부를 최소화한 시야부터, 아노카도 오일, 호호바 씨 오일 등의 천연 성분만 담았다. 200ml 829천원, 문의 031-716-4866 *_by 에디터 이지유*

바버리 허 인센스 싱클레 블랙베리와 체리 향으로 시시해 향긋한 재스민으로 이어지더니 달콤하고 부드러운 벤조인으로 마무리되는 매력적인 향. 따뜻한 무렵 지어기 부담 없이 즐기 좋다. 100ml 2026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이지유*



ode to Paris

2020년 1월, 파리를 향한 디ptic의 오미주를 담은 특별한 향 '오 카피탈 오 드 퍼퓸(Eau Capitale Eau De Parfum)'이 출시된다. 60년 만에 소개하는 파리의 향기를 고안하기까지, 그 배경이 된 도시의 예술, 문화유산과 디ptic 본사에서 발견한 놀라운 보물을 직접 확인하고자 〈스타일 조선티보〉가 파리로 향했다.

1961년 파리 생제르맹 34번가에서 3인의 아티스트, 화가 데스몬드 녹스 리트(Desmond Knox-Leet), 무데 디자이너 이브 쿠에랑(Yves Coueslant), 건축가 크리스티안 고트로(Christiane Gautrot)가 설립한 니치 퍼퓸 브랜드 디ptic. 초기에 향초, 인테리어 소품 등의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파는 작은 부티크 '시크 바자르' 시작한 이들은 1968년 브랜드 최초의 향수 '로(L'eau)'를 시작으로 플로럴, 우디, 푸제르 등 다양한 계열에 걸친 후각 컬렉션을 구축해왔다. 여타 브랜드에서 찾을 수 없는 차별화된 향기와 예술적 감수성으로 프랑스 감성을 향으로 전해온 이들에게는 그간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다. 바로 브랜드 론칭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디ptic의 발원지이자 정체성의 근원인 파리에 관련된 향기를 출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이자 낭만의 상징이며, 문화 예술의 황금기를 보낸 흔적이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끝없는 창의성이 영감으로 재생되는 이곳에 대해 단 한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단다. 소재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일까, 혹은 이곳이 품은 다채로운 매력을 표현할 완벽한 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까. 다양한 궁극증을 품고 있던 차, 드디어 디ptic에서 파리를 향한 애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향수, '오 카피탈 오 드 퍼퓸(Eau Capitale Eau De Parfum)'을 선보인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을 3개월여 앞둔 지난 10월, 파리로 향했다. 신제품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파리 오페라 에이비뉴에 위치한 디ptic 본사였다. 파리의 중심지인 오페라 지구 대rob면에 위치한 오페르스느는 천장, 커다란 유리창, 건물 외벽을 두른 긴 발코니, 대리석 벽난로, 고풍스러운 페틴의 마룻바다 등 19세기 파리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오스만 스타일 빌딩의 특성을 두루 갖췄고 있었다. 얼마 전 이곳으로 이사를 한 디ptic는 우연히 숨겨진 문 하나를 발견하는데, 바로 이곳에 살던 입주자이며 프랑스의 배우 겸 가수인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가 사용하던 욕실로 통하는 문이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양부새와 오색찬란한 공작새, 바다 풍경과 무성한 식물 그림이 뒤섞인 환상적인 프레스코 장식의 아르누보 스타일의 벽. 이 걸작품의 발견으로 디ptic는 운명과 같이 새로운 향수의 영감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후 창작 과정에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시대, 그리고 브랜드 사이에 놀랄만큼 많은 연결 고리를 찾게 된다. 당대 여성의 우아함을 상징하던 백조, 예술적 요소로 각광받은 공작새 모티브가 디ptic의 향수 속에 등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 그리고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파리 특유의 세련미를 이룬 초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역사상 가장 유명한 향초 '시프레(cypre)' 노트다.

1917년 현대 향수의 산구자로 불리는 프랑수아 코티(François Coty)가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한 향에서 유래, 이 섬을 지칭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시프레 향 조는 상큼한 과일 향의 시트러스 노트로 시작해 풍성한 플로럴 노트로 이어지며 그윽한 우디 향으로 마무리되는 다채로운 매력을 지녔다. 이를 응용한 향수를 개발한 것은 디ptic 내 에서 이번이 최초. 컬렉션 개발 첫 단계부터 함께한 전설적인 조향사 올리비에 페쇼(Olivier Pescheux)는 디ptic 본사에서 이뤄진 소규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특정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파리의 우아한 무드를 신비롭고 유니크하게 표현할 수 있는 향을 개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들 노트에는 불가리안 로즈와 타기 로즈를 사용해 만개한 장미 화원에 서 있는 듯 짙은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 같은 장미과의 품종일지라도 에센스, 앰솔루트, 컨센트레이트, 총 세 가지 추출법을 통한 차별적 원료로 향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가 밸런스를 이루며, 보다 섬세하고 우아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디ptic는 예상치 못한, 기분 좋은 놀라움을 선사하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재료(히든 노트)를 더해 보다 감도 높고 개성 있는 향을 개발하는 데 능한데, 이번 신제품에는 특 조는 핑크베리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우디한 향을 더하기 위해 나무나 이끼가 아닌 파출리 히트를 사용한 점 또한 눈여겨볼 요소. 한편 '오 카피탈'의 감성을 시작적으로 전하는 역할을 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실내장식 디자이너 피에르 마리(Pierre Marie)는 디ptic, 파리, 시프레 향조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패키지 개발을 진행했다. 파리 시내 곳곳에 남아 있는 아르누보 양식의 건축물과 디ptic 아카이브에 남아 있는 초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향수 보틀 전면에는 에펠 타워, 장미, 베르가모트, 파출리 등의 상징적 요소를, 후면에는 아르누보를 상징하는 공작새와 장미, 파출리 등 돌을 기하학적 구성으로 그려 넣었다. 현대적인 동시에 벨 에포크 시대의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무드를 표현한 것이 '오 카피탈'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이처럼 파리의 가장 황홀한 면모를 섬세하고 정제된 언어로 재현한 컬렉션은 '오 카피탈 오 드 퍼퓸'과 더불어 어디에서나 휴대하기 간편한 '오 카피탈 솔리드 퍼퓸(리미티드 에디션)'으로도 출시하며, 센터드 캔들과 센터드 오일(리미티드 에디션, 면세 한정 판매)까지 함께 선보여 공간 스타일링도 가능하다. 1~2월 한정으로 전개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케이스는 화려한 장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장식성이 뛰어나 소장 가치가 높을 듯. 파리를 향한 진한 애정과 향수, 추억을 지닌 이라면, 혹은 아직 파리를 방문해보지 못한 이라면 이 그윽한 향으로 도시의 정서를 경험해보는 것이 어떨까? 에디터 이지유 추천



오 카피탈 오 드 퍼퓸을 완성하는 시프레 향조의 원료 이미지.



Winter E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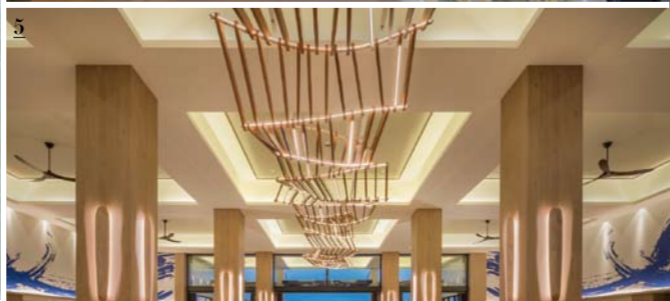
건기가 시작되는 12월부터 4월은 베트남 남부 여행의 최적기다. 전통에 대한 존중과 다채로운 취향이 어우러진 호찌민과 최근 휴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호찌, 상반되는 두 여행지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숙소 두 곳을 소개한다.

힐링의 정점으로, 호찌

호찌(Ho Tram) 해안에 자리한 '멜리아 호찌 리조트'는 젊은 여행자와 아티스트가 모여드는 호찌민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호찌민에서 차를 타고 동남쪽으로 1시간 30분 정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앞쪽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인 호찌 해변이, 뒤쪽으로는 울창한 맹그로브 숲이 펼쳐진다. 크게 호텔 객실과 빌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탁 트인 바다 전망의 메인 타워에는 1백52개의 크고 작은 객실과 스위트룸, 61개의 화려한 빌라 등 총 열 가지 타입의 숙소가 있다. 기본 객실도 널찍한 공간과 발코니를 품고 있지만, 좀 더 프라이빗한 휴식을 만끽하고 싶다면 개인 수영장 이 딸린 빌라 타입 숙소를 적극 추천한다. 자연에 둘러싸인 공간과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침실, 멋스러운 가전과 가구를 갖춘 리빙룸, 호수가 하늘에 보이는 테라스는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든다. 돌만이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공간이 필요한 연인에게엔 더 레벨 로맨스 스위트룸을 추천한다. 리조트 내에는 여독을 풀어줄 아늑한 스파, 약 열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갖춘 공간도 있다. 고품질 음악이 흐르는 따뜻한 공간에서 스파를 즐긴 후 진저 허니티로 마무리하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지역적 특색이 묻어나는 베트남식부터 일식, 양식 등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것도 이곳의 별미. 메인 빌딩에 위치한 사사(SASA), 메인 라운지에 자리한 엘리시어(ELYXR),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브리자 비치 클럽(Breeza Beach Club), 베트남어로 흰색 소금을 뜻하는 무오이(Muoi) 등 네 곳에서 훌륭한 미식 체험을 할 수 있다. 먼저 무오이는 계절을 맞춘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베트남 요리를 선보이는 곳으로, 매콤한 향신료를 더한 해산물은 한식에 익숙한 이들에 추천한다. 브리자 비치 클럽은 캐주얼한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눈부신 해변을 바라보며 바비큐와 달콤한 카테일을



3



6



7



8



9



12

6 해 질 녘까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호찌의 힐링. 7 멜리아 호찌 리조트 내에 자리한 YHI 스파. 8 다양한 아시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사사(SASA) 레스토랑. 9 호찌민 사파리 한눈에 내려다보는 인사이트 사이공 센트럴 루프탑 뷰. 10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런트. 11 인사이트 사이공 센트럴은 다섯 가지 타입의 객실과 스위트룸을 제공하는 선택의 폭이 넓다. 12 모던한 감성으로 채운 인사이트 프라이빗 룸.

JEWEL&WATCH



컷트는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2가지로 선보인다. 문의 1566-7277

골든듀 골든듀 컷 다이아몬드 콘스탄트 링 패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콘스탄트 링이 골든듀 컷 다이아몬드 콘스탄트 링으로 새롭게 발바꿈한다. 브랜드의 시그니처 'Dew(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올려 기존 모델인 패어 컷보다 한층 세련된 이미지를 준다. 영리한 아름다움과 변함없는 사랑이란 의미를 담은 이번 콘스탄트 링은 골든듀 창립 본점과 전국 백화점 매장에 서민나볼 수 있다. 문의 1588-6576

반클리프 아펠 락기 애니멀 자연을 주제로 주얼리를 제작한 반클리프 아펠에서 온화하고 사랑적 인 다섯 동물을 모티브로 한 매력적인 클립 락기 애니멀 컬렉션을 출시한다. 우아하고 환한 호스(horse), 역동적인 덕(duck), 평화롭고 느긋한 터틀(turtle), 우정을 상징하는 판다(panda), 활기 넘치는 피그(pig), 총 5가지 타입, 클립 각각의 개성을 느낄 수 있다. 문의 00798-852-16123

로저드뷰 EXCESS in Seoul 이번엔 진행 지난 12월 5일 상수동에서 열린 'EXCESS in Seoul' 행사에서 엑스칼리버 컬렉션 신제품을 소개한 로저드뷰는 시계 제조 기술력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 표현력을 보여줌에 끝없이 도전하는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로서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로저드뷰의 CEO 니콜라 안드레아티는 2020년에 고급 시계 제조의 전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2-3449-5914

라저드 밀 RM11-04 오토매틱 플리아백 크로노그래프 로베르토 만치니 브랜드 파트너로서 함께해 온 이탈리아 국가 대표 축구팀 수장, 로베르토 만치니를 위한 특별한 타임피스. 디스플레이 창에 이탈리아 국가 일 트라콜로레를 상징하는 그린·레드·화이트 색상을 넣었다. 스트랩은 아주라 군단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축구팀 대표 색상인 블루 컬러. 만치니 감독에게 헌정하는 RM11-04 모델은 하프타임, 엑스트라이타임, 오버타임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12-1311

까르띠에 라 팬더 브레이슬릿 브랜드 역사를 담은 팬더 드 까르띠에 컬렉션. 프랑스어로 표범을 뜻하는 팬더는 까르띠에를 대표하는 영물로, 이브로카 여행 중 먹이를 찾아 헤매는 팬더에게 매료된 루이 까르띠에가 이를 모티브로 주얼리를 만들었다. 이번 달 새롭게 출시하는 라 팬더 컬렉션은 브레이슬릿과 링으로 구성했다. 브레이슬릿은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2가지로 선보인다. 문의 1566-7277



골든듀

로저드뷰

SHOWROOM



펜디

펜디 FF 토트백 FF 토트는 핸드백 백을 이어 주는 FF 로고의 골든 디테일이 특징. 큼직한 내부 수납 공간과 포켓이 있어 완벽한 공간 장리가 가능하다. 짧은 핸들과 과 큰 사각 형태가 복고풍 매력을 발산하며 카프 스킨 리더 소재에 반짝거리는 페이먼트 효과까지 더해 빈티지 백을 연상시킨다. 사이즈도 다양한 모든 여성들에게 어울린다. 문의 02-2056-9023

몽클레르 6 몽클레르 1017 알릭스 9SM 론칭 5주년 이후, 다양한 목소리는 모토를 기반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몽클레르 디자이너 사비온 라인을 론칭한다. 1017 알릭스 9SM의 디자이너 마티 알리우스는 몽클레르 특유의 기능성에 브랜드가 지닌 테크니컬 감성을 더해 그동안 그가 보여주지 않았던 룩을 소개한다. 이번 6 몽클레르 1017 알릭스 9SM 컬렉션은 1월 11일부터 서울 플라그립 스토어에서 판매한다. 문의 02-514-0900

보테가 베네타 BV 트윈스트 삼각형 클라치 형태의 BV 트윈스트는 보테가 베네타 시그니처인 낫

(knot, 매듭을 활용해 카디건 매듭을 핸드백 재해석했다. 손에 들거나 손목에 감아 착용할 수 있어 데일리룩은 물론 이브닝 룩에도 매치 가능하다. 외부는 기능적인 패넬로 제작했으며, 내부에는 자퍼 포켓이 있어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춘 캐주얼 특징. 문의 02-3438-7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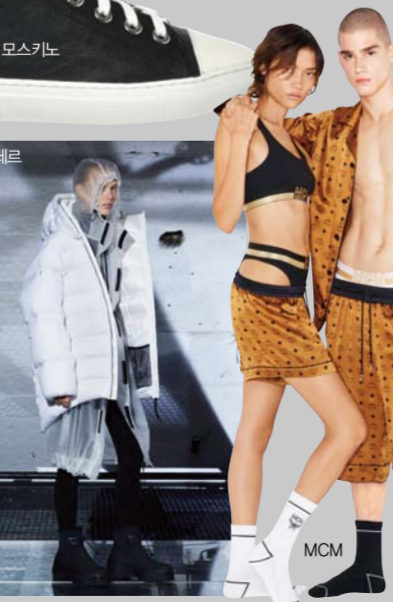
브리오니 2020 S/S 브랜드 앰배서더 브래드 피트 선정 세계적 명품 남성복 브랜드 브리오니가 2020 S/S 브랜드 앰배서더로 전설적인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인 브래드 피트를 선정했다. 그는 칸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를 포함한 주요 레드 카펫 행사에서 브리오니 제품을 선택해 브랜드 앰배서더다운 면모를 보였다. 브리오니와 브래드 피트가 함께한 협동 작업은 브리오니의 탄생 75주년을 기념하며 2020년 1월 첫 번째 광고 캠페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02-3274-6483

모스카노 2020 뉴 이어 컬렉션 크리에이터 제라미 스콧의 지휘 아래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인 컬렉션을 선보이며 패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모스카노가 2020 뉴 이어 컬렉션을 내놓았다. 쥘피 해를 맞아 카치한 감성이 묻어있는 미키 캣 캐러터 아우터, 니트, 트랙 슈트 등 의류부터

폰 케이스, 지갑 같은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을 론칭할 수 있다. 문의 02-3448-1340

브룩스브러더스 레드 플리스 울 트러너코트 울이 스며들지 않게 이중 처리한 트윈 소재 트랜치코트는 스트레처링 소재가 들어가 있는 날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레드 플리스는 기존 브룩스브러더스 특유의 클래식한 캐주얼을 접목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이는 캐주얼 라인이다. 문의 02-2052-8822

MCM 언더웨어와 라운지, 슬립웨어 컬렉션 MCM이 처음 출시하는 언더웨어와 라운지, 슬립웨어 컬렉션. 더 이상 옷 안에 숨거나 실내에서만 착용하는 언더웨어가 아닌, 밖에서도 자유롭게 착용해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재정의한다. 편안하면서 또 대담한 디자인으로 브라프, 트렁크 팬츠, 브라톱은 물론 샷스, 레깅스, 크롭드 탑, 시트를 쇼츠 등 다양한 제품을 1월 13일에 출시한다. 문의 02-540-1404



모스카노



MCM



디올 뷰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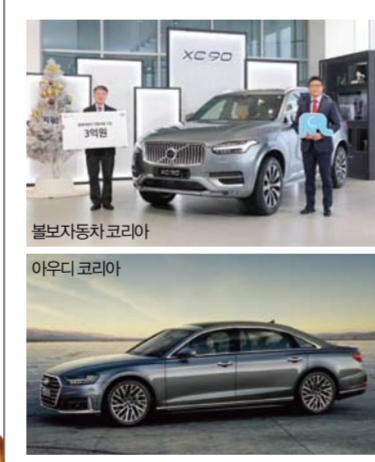
라프레리

디올 뷰티 자켓 변천, 캠프 토탈 자켓 변천이 캠프 토탈 스킨케어 라인의 새로운 얼굴로 함께한다. 진실되고 건강한 것은 자켓 변천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자 새롭게 출시하는 캠프 토탈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캠프 토탈은 오랜 연구를 통해 탄생했으며 피부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세럼, 크림 등 제품도 다양하다. 문의 030-342-9500

라프레리 아트 비젤 마이애미 라프레리가 저명한 예술가 파블로 발브에-에게 빛의 형태에서 영감을 예술 작품을 의뢰하며 탄생한 작품 'Wave'. 이 설치 작품은 지난 12월 2019 아트 비젤 마이애미 에디션으로, 마이애미 해변에 전시되었다. 이번 협업은 오는 2월 신제품 화이트 캐비어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문의 02-6330-1115

에스티 로더 레드 갈색형 리미티드 에디션 새해를 맞아 장수를 기원하는 문장과 쥘피 해를 기념한 질이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레드 갈색형과 함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재탄생한다. 밤사이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 주고, 낮에는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1월 중순 론칭 예정. 문의 02-6971-3212

에스티 로더



볼보자동차 코리아

이우디 코리아

볼보자동차 코리아 푸르메재단 지원 사업 기금 3억원 전달 볼보가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비영리 재단인 푸르메재단에 지원 사업 기금 3억원을 전달했다. 전달한 기금금은 장애 어린이 약 1백여 명의 재활 치료비 및 맞춤형 보조기구 제작에 쓰일 예정이다. 볼보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문제를 함께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1588-1577

이우디 코리아 더 뉴 이우디 A8 L 55 TFSI 콰트로 플래그십 프레스티지 대형 세단 이우디 A8의 4세대 모델, 전 세대 대비 길어진 전장파 휠 베이스로 실내 공간이 넓고 안락하다. 전 좌석에는 마사지 및 통풍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시트와 부드러운 실내 조명을 갖추어 이동 중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02-6009-0000

LIFESTYLE

Cultural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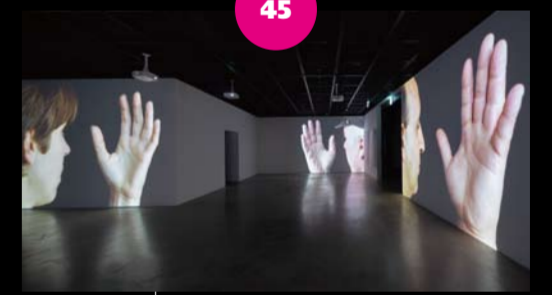
더 많은 이들이 찾고, 시간과 돈을 들이며, 애정을 많이 받는 현재의 '스타 도시'에도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긴장과 아픔, 음울한 기운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비관론자들은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 자체도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잇속을 차린다고 전하는 사업일 뿐이라고 비교도 한다. 하지만 '도시'라는 현상은 아쩔 수 없는 흐름처럼 보이고, 소수의 도시가 누리는 '슈퍼스타'로서의 자유 역시 점점 더 강력해져만 가는 것 같다. 제이무리 모순적인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감성과 풍경이 매력적인, 혹은 언젠가부터 매력적으로 바뀐 도시의 모습을 보면 더 머무르고 싶고, 궁금해지는 게 인지상정. 할리우드의 찬란한 빛을 등에 업고 있지만 문화 예술적 맥락에서는 뉴욕에 한참 뒤처졌다고 평가받았으나, 21세기 들어 꾸준한 변화의 노력 덕분에 사뭇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는 미국 서부의 대표 도시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도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스페인으로 천사의 도시라는 뜻을 지닌 로스앤젤레스는 한때 그 빛을 잃었던 다윈의 부활과 더불어 '날개'를 달았고, 문화 예술 콘텐츠는 물론 미식, 호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련되고 훨씬 더 풍부한 풍경을 지니게 됐다. 이번 'Art+Culture' 스페셜에서는 그 달라진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특집과 더불어 세계 주요 도시를 낚아채면서 꾸준하고 의미 있는 행보를 펼치고 있는 동시대의 한국 작가들도 소개한다. 이들의 존재감은 최근 우리나라가 낳은 불세출의 작가 감화의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라 더욱 고무적으로 느껴진다. 이 밖에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의 환상적인 물안경 미디어 아트 전시를 비롯해 즐거움을 지루하지 않게 해줄 대체로운 전시 소식도 전한다. 글 **고성연**



44



40



45



46



37

FASHION



보테가 베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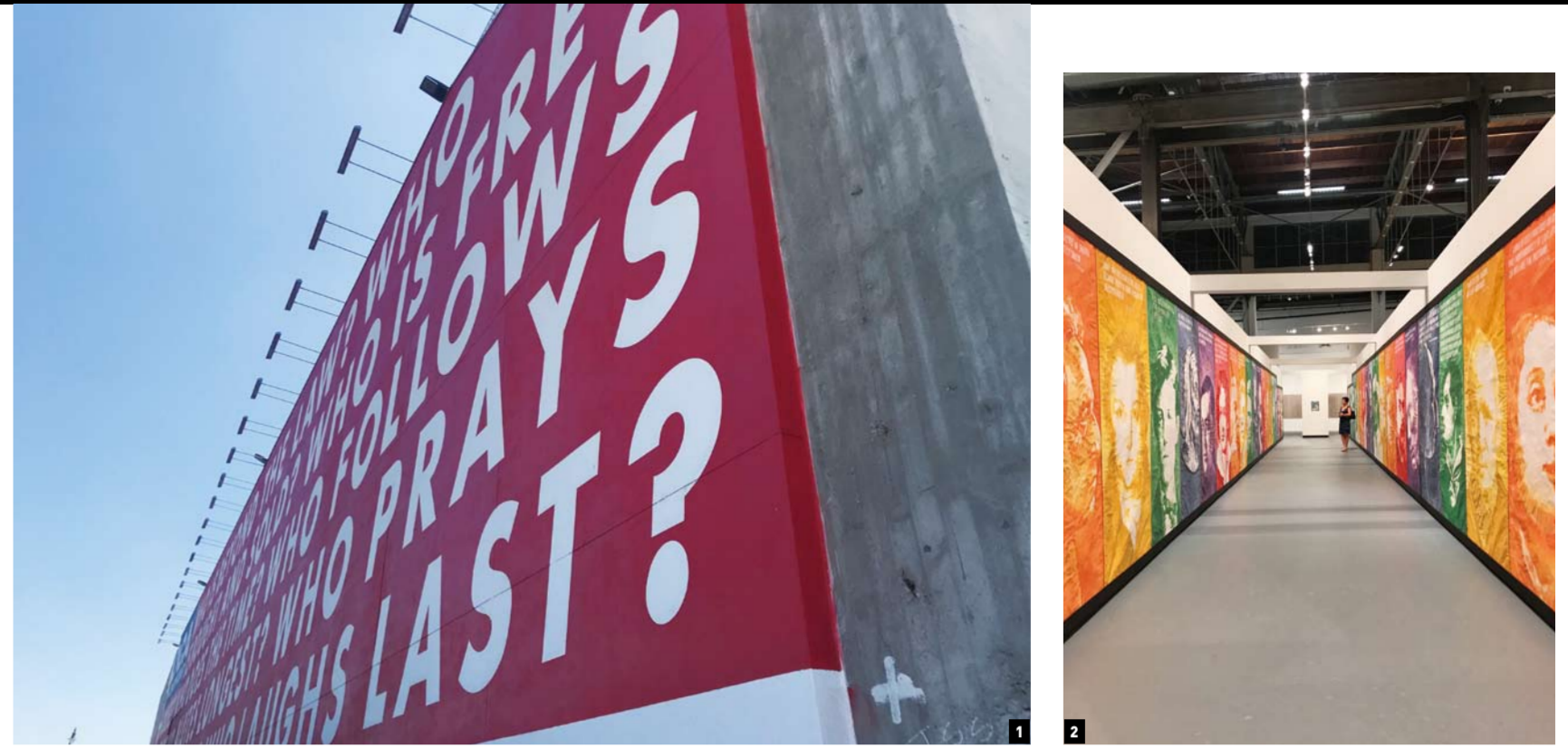
브리오니



MCM

Art and the City, L.A.

2016년 개봉작 <라라랜드(La La Land)>를 보고 반하지 않기는 힘들다. 영상미, 음악성, 스토리 등 뭐 하나 빠질 게 없으니까. 특히 꿈을 꾸듯 낭만적인 몇몇 장면에서는 절로 몰입이 된다. 주인공이 영화를 보다가 별들 사이로 들어가 춤을 추는 모습이든 차가 꽉 막힌 상황에서 펼쳐지는 '고속도로의 뮤지컬'이든 저마다 매혹되는 지점이 다르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후 이 영화의 무대가 된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는 시쳇말로 '대박'이 났다. 원래도 '잘나가는' 도시이기도 했지만 '라라랜드 효과'로 시네마 투어, 건축 투어, 음악 투어 등 다양한 테마를 들고 엘에이(L.A.)로 향하는 이들이 더 많아진 건 당연지사. <라라랜드>의 OST 히트곡 'City of Stars'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마도 이 도시의 운명이었음에도 모르겠다. 로스앤젤레스를 찾는 여행자들이 주목해볼 만한 또 하나의 주제는 '아트'다. 할리우드를 거느린 이 도시가 시네마의 고장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영화감독이나 배우들 말고도 꽤 걸출한 아티스트들을 배출한 곳이다. 최근 '빛의 거장'이라 할 만한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개념미술의 대가 존 발데사리(John Baldessari),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젊은 작가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도 로스앤젤레스 출신이고, 2019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30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한 '살아 있는 전설'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는 영국 출신이지만 커리어 여정의 상당 부분을 이 도시에서 소화했다(정확히 말하면 샌타모니카). 하지만 '아트 도시'라는 명함을 내밀기에는 뉴욕이나 파리 등에 비해 미술관이나 컬렉션 등 콘텐츠가 아무래도 달렸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상승 무드'를 타면서 꽤 달라졌다. 2015년 억만장자 엘리 브로드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 현대미술관 더 브로드(The Broad)를 세우면서 전 세계에 화제를 뿌렸고, 같은 해 스위스의 저명한 갤러리 하우스 앤드 워스(Hauser & Wirth)가 '뮤지엄급' 전시장을 열었다. 주요 미술관들도 큰돈과 공을 들여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도시의 현대미술 지형이 달라지자 3대 아트 페어 브랜드인 프리즈(Frieze)도 발 빠르게 일찌감치(오는 2월에 2회 행사가 열릴 예정). 한정된 지면이지만 로스앤젤레스 내 지역별로 현대미술 위주로 발품을 팔 만한 요지를 추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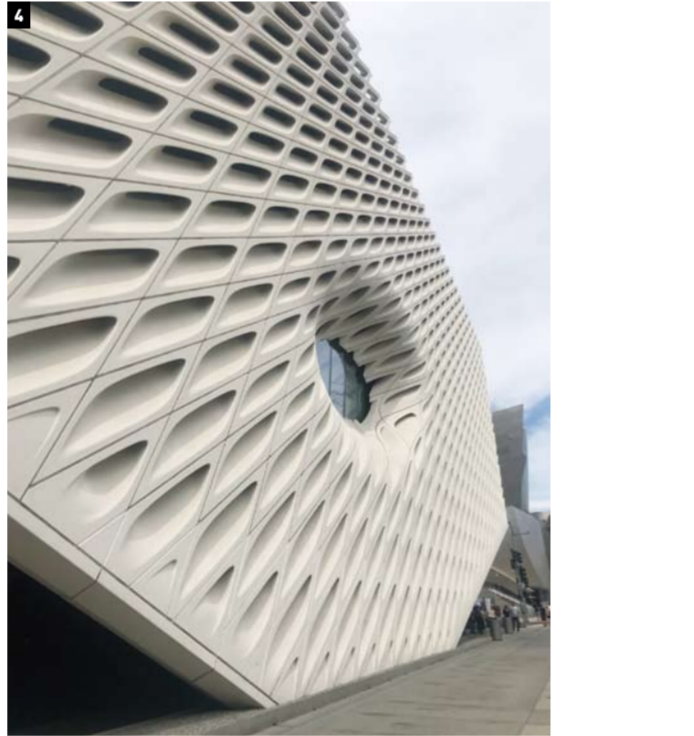


Downtown/LA Metro



2 설계했는데, 마치 입도적 오라(aura)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프랭크 게리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Walt Disney Concert Hall)과 나란히 서 있는 자라 눈코가 절로 되는 인스타그램 성지다. 더 브로드는 머니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엄한 컬렉션을 갖추어 살짝 반짝이 들 정도지만, 사실 세계는 물론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주요 작가들의 창조 여정을 훑을 수 있는 곳임에 틀림없다. 제프 쿤스, 신디 셔먼, 에드 루샤, 앤디 워홀, 마크 브래드퍼드, 바버라 크루거, 정미셀 바스키아 등 현대미술계에서 내로라하는 이름들이 계속 등장한다. 천천히 잘 보면 마크 탄지(Mark Tansey)처럼 작품을 보기 쉽지 않은 희소성 있는 작기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무료지만 주말에는 예약하는 편이 낫고, 구사마 아오이의 '인피니티 미러 룸(Infinity Mirror Room)'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지 않고 감상하기 힘들다. 더 브로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같은 그랜드 애비뉴(Grand Avenue) 선상에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MOCA)이 자리하고 있다. 동시대의 문화 예술 흐름에 관심이 있다면 꼭 방문해야 할 중요한 현대미술 플랫폼이다. 미술관 역사는 1970~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랜드 애비뉴에 있는 신관은 일본 건축가 이사자키 신이 설계했고, 이츠미 트리트 근처의 리틀 도쿄에는 별관인 개편 컨템퍼러리(개편 컨템퍼러리)가 있다(개편 하루도 두 군데 다 입장 가능하다). 짙은 울룩, 재스퍼 존스, 마크 로스코 등 세기의 예술가들을 접할 수 있고, 동시대 작가와 트렌드를 주로 조명하는 흥미로운 기획도 열리지만, 주말을 빼면 그치지 못하지 않아 진중하고 한층 감성을 원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시 장부 차원에서는 더 브로드와 MOC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등을 묶는 그랜드 애비뉴를 '로스앤젤레스의 상할리우드'처럼 브랜딩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니 앞으로의 풍경이 더 기대된다.

■ 더 브로드(The Broad) 주소 22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2 웹사이트 thebroad.org ■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MOCA) 주소 250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2 웹사이트 moca.org ■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Walt Disney Concert Hall) 주소 11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2 웹사이트 lapnh.com



1 회화, 사진, 설치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미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MOCA). Photo by SY Ko 2 그랜드 애비뉴에 있는 MOCA에서 2016년 9월 13일부터 사흘간 한층더 선보이고 있는 조각품 전시 풍경. 미국 작가 존 챔버라인(John Chamberlain)의 조각 작품 등이 보인다. Courtesy of MOCA. Photo by Brian Forrest 3, 4 월 죽었던 로스앤젤레스 다우타운 풍경을 바꾼 랜드마크 중 하나인 더 브로드(The Broad)의 내부 외관. 미술관 설계는 일류 건축 스튜디오 빌라 스코피디오+렌프루가 맡았다. 5 더 브로드 바로 옆에 자리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세계적인 건축 거장 프랭크 게리가 설계했다. 3~5 Photo by SY Ko



Arts District, Downtown

다우타운에서도 요즘 '핫한'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아트 디스트릭트는 사실 원래는 이쯤처럼 고아하고 생기 있는 문화 예술의 기원이 남실대는 곳이 아니었다. 포도밭과 감귤류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 등으로 넘쳐났다가 공장이 가득 들어선 시기가 있었다고. 그러다가 현대 도시에서 흔해 볼 수 있었던 예술가들이 버려진 공장 부지에 작업실을 차렸고, 서서히 변화의 파장을 타기 시작했다. 아트 디스트릭트의 변천사를 추적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수필가는 이번 로스앤젤레스 스페셜의 호텔 편에서 소개한 소방서를 개조한 옛들어진 파이어하우스 호텔(Firehouse Hotel)이 자리한 산타페 애비뉴를 떠올릴 때, 대부분 운전자들이 빨리 지나려고 속도를 내 바로 고속도로로 빠져나간 했다고 기억했다. 적어도 동네 주민이나 특정 그룹이 아닌 경우에는 인적이 드물고 낙후된 공장 지대로 여겼다는 얘기도(실제로 땅보름을 하는 뮤지션 등은 아트 디스트릭트의 술집이나 카페를 애용했다고). MOCA의 별관인 개편 컨템퍼러리(The Geffen Contemporary at MOCA)가 1983년 이후 자리를 지켜오긴 했지만, 아트 디스트릭트 전체의 그림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가져다온 이곳의 풍경은 사뭇 달라졌다. 이제는 무료 주차 공간이 남아 있기도 하면 패자를 부를 정도로 트렌드세터들이 많이 찾는 인기 명소 동네로 떠올랐다. 수십 채 오래된 건물에 흩어져 살던 예술가 집단의 인구 지체는 확 줄었지만 대신 '핫한' 느낌의 근사한 카페와 레스토랑, 바, 호텔이 많이 생겨나고 유동 인구가 크게 늘었다. 대중을 위한 아트 스페이스는 물론 상업 갤러리, 건축 설계 사무소, 촬영 스튜디오 등이 속속 들어섰다. 벽에 낙서하는 '그래피티 아트'의 수준도 훨씬 더

대담해지고 세련됐다. 아티스트들의 작은 허브라기보다는 식문화와 예술 등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지면서 복합적인 문화 지류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도시 재생의 배경에는 불거리, 막거리, 줄길 거리 등 콘텐트가 살아있는 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이 지역에 문을 연 세계적인 하우스 앤드 워스(Hauser & Wirth) 로스앤젤레스 지점이 반반히 언급된다. 개편 컨템퍼러리 최대 규모를 자랑했지만 1960년대 중반 경영 부진으로 폐쇄된 글로브 밀즈(Globe Mills)라는 밀가루 공장 단지를 아주 세련되고도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멋지게 부활시켰다. '1백년 역사의 버려진 제분소는 갤러리 분장을 낼 때 되도록 그 지역의 역사적 유산으로 여겨지는 건물을 개조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하우스 앤드 워스다운 선택이다. 제분소 말고도 옆 은행 건물 등으로 이뤄진 '모형'의 카운터 복합 단지(이곳에 약 9,256㎡(2만8천평) 면적 중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어떤 건물이나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예컨대 '사우스 갤러리의 경우 높은 천장을 둔 신교전주의 건축양식이라고 풍성스럽고, 밝고 경쾌한 인물은 아외 공연장 같다(실제로 팔자가 방문했을 때 자주 공연이 열렸는데, 갤러리 소속 아티스트는 밴드에서 '드러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유구한 레스토랑 마누엘라(Manuela), 아트 북 숍 등으로 이뤄진 매혹적인 공간의 개관 레 레 수산만 명의 발길을 이끌었다. 2017년에는 문화 예술계의 혁신을 도모하는 아이디어 플랫폼이자 미술관 ICA LA가 모습을 드러냈다. 1984년 설립된 샌타모니카 뮤지엄이 새로운 정체성을 띤 채 새로 등장을 트 시키는데, 로스앤젤레스의 젊은 스타 작가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가 로고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 개편 컨템퍼러리(The Geffen Contemporary at MOCA) 주소 152 N Central Ave., Los Angeles, CA 90012. 웹사이트 moca.org ■ 하우스 앤드 워스(Hauser & Wirth) 로스앤젤레스 주소 901 - 909 E 3rd St., Los Angeles, CA 90013. 웹사이트 www.hauserwirth.com ■ A+D Architecture and Design Museum 주소 900 E 4th St., Los Angeles, CA 90013. 웹사이트 aplusd.org ■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ICA LA) 주소 1717 E 7th St., Los Angeles, CA 90021. 웹사이트 www.theica.org/en



1 아트 디스트릭트에 있는 MOCA의 별관 개편 컨템퍼러리(The Geffen Contemporary at MOCA) 건물 외관. 경쾌한 그래픽과 시화 비탄적 메시지로 유명한 바버라 크루거(Barbara Kruger)의 작품 'Untitled (Questions)'가 건물의 파사드 일부를 장식하고 있다. Photo by SY Ko 2 개편 컨템퍼러리에 있는 마이크 켈리(Mike Kelly)의 작품 'Play for Your Pleasure' (1988). Photo by SY Ko 3 개편 컨템퍼러리의 미술관. Courtesy of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Photo by Elton Schoenholz 4 건축과 디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미술관 A+D(Architecture and Design Museum)의 전시 풍경. Courtesy of A+D. Photo by Hans Koesters. 5 아트 디스트릭트의 명소로 자리 잡은 하우스 앤드 워스 로스앤젤레스의 외관(2019). Photo by Elton Schoenholz 6 하우스 앤드 워스 로스앤젤레스의 유구한 레스토랑 마누엘라(Manuela, 2016). Photo by Joshua Targovnik/targovnik.com 7 하우스 앤드 워스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체 제작한 열린 미국 아티스트 찰스 게인스(Charles Gaines)의 전시 풍경. Photo by SY Ko. 8 아트 디스트릭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스트리트 아트 작품. © Los Angeles Tourism



INFO

4차에 걸친 로스앤젤레스 관광정보(https://kr.discoverlosangeles.com)



Westside and Mid-City

이 지구는 대체로 문화 예술 공간이 몰려 있는 '아트 허브'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미술이 장기파트너십을 맺고 있기도 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LACMA)이 있다. 2백여개의 앤더슨 가문들을 정렬해놓은 이 미술관의 아이코닉과 같은 크리스 버든(Chris Burden)의 설치 작품 '어번 라이트(Urban Light)'는 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면 필수 여정에 넣을 만큼 유명한 작품. LACMA가 애초에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이후에는 반전의 노력을 거듭하면서 위상을 불려나가고 있는 사례다. 파리의 폼퐁트 센터를 설계한 건축계 가장 렌츠 피아노가 총감독을 맡아 대대적인 레노베이션 작업을 거쳐 새로 태어난 만큼 '격이 달라졌다. 2000년 현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BCAM(Broad Contemporary Art Museum), 2010년 특별전을 위한 공간인 레즈닉(Resnick) 파빌리온 등이 생겼는데(아주도 추가적인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워낙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주목의 대상이다 보니 건축인에 대한 논쟁으로 늘 시끄러워지는 하다). '브로드'라는 명칭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다운타운의 사립 미술관 더 브로드를 만든 자수성가형 거부 알라이 브로드(Ally Broad) 때문이다. 사실 오페라, 현대미술, 공연 등 각종 문화 예술 시설에 그가 직접적으로 기부한 자금과 노력이 없었다면 로스앤젤레스는 여전히 뉴욕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불모지 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라는 얘기가 당시엔 정말로 그 도시 문화 예술계의 척추 같은 존재다. 아찔하거나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면 LACMA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투자해야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큼 컬렉션이 방대하다(해머 빌딩에 한국 미술 등 동아시아 미술도 늘 접할 수 있다). LACMA를 위해 미드 윌셔 가를 따라 1마일 정도의 주변에는 각종 미술관과 갤러리가 모여 있다. 그래서 뉴욕 맨해튼의 뮤지엄 마일을 연상시키듯 '미리움 마일'이라 불리기도 한다. 타르빗 뮤지엄(La Brea Tar Pits & Museum), 수공예 뮤지엄, 홀로코스트 박물관,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현대미술을 다루는 갤러리 기능도 하는 아트 플랫폼인 스티브 터너 컨템퍼러리(Steve Turner Contemporary) 등 다양한 뮤지엄이 있다. 더 넓게 바라볼 때 웨스트 사이드와 미드-시티 근방에는 흥미로운 갤러리와 아트 스페이스가 많다. 최근 서울 용산의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에서 대대적인 개관전을 가진 바버라 크루거(Barbara Kruger)가 소속된 스프릿스 마거스(Sprith Magers), 데이비드 코르단스키(David Kordansky) 갤러리, 케빈 그리핀 코르코란(Kayne Griffin Corcoran) 등 우수 갤러리들이 들어서 있다. 시골에 관심이 있다면 전문 플랫폼인 아넨버그 스페이스(Annenberg Space for Photography)도 빼놓아서는 안 될 장소다. 또 규모는 아주 크지 않지만 보석 같은 컬렉션을 거느린 해머 뮤지엄(UCLA at the Armand Hammer Museum of Art), 미국 석유 재벌 존 롱 게티가 오랜 시간을 들여 완성한 엄청난 규모의 개인 미술관인 게티 센터(Getty Center), 가족끼리 즐기기에 적합한 스카빌 문화센터(Skirball Cultural Center) 등 풍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가리고 있다.

■ LACMA 주소 59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웹사이트 www.lacma.org ■ 스프릿스 마거스(Sprith Magers) 갤러리 주소 59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웹사이트 www.spruethmagers.com ■ 해머 뮤지엄(UCLA at the Armand Hammer Museum of Art) 주소 10899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웹사이트 ucla.edu ■ 아넨버그 스페이스(Annenberg Space for Photography) 주소 2000 Avenue of the Stars, Los Angeles, CA 90067 웹사이트 annenbergphotospace.org ■ 게티 센터(Getty Center) 주소 1200 Getty Center Dr, Los Angeles, CA 90049 웹사이트 www.getty.edu/visit/center ■ 스카빌 문화센터(Skirball Cultural Center) 주소 2701 N Sepulveda Blvd, Los Angeles, CA 90049 웹사이트 www.skirball.org



1 지난해 가을부터 LACMA의 레즈닉(Resnick) 파빌리온에서 전시 중인 사도호(Do Ho Suh)의 설치 작품 '348 West 22nd Street, Apartment A, Unit-2, Corridor and Staircase' (detail) (2011~15). © Do Ho Suh, photo © Museum Associates/LACMA 2 앤더슨 가문들 2백여개를 현대 정렬해놓은 크리스 버든(Chris Burden)의 작품 'Urban Light'. LACMA의 '미아르' 같은 작품 중 하나. Photo from L.A. Tourism 3 미국 사람이 아넨버그 센터의 개관 컬렉션을 바탕으로 하는 UCLA 해머 뮤지엄(Hammer Museum at UCLA).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과 빈 고흐, 렘브란트, 시몬딩 등 유럽 거장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Photo by Sarah M. Golonka 4 트램플 타고 올라가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환상적인 전망과 세파적 건축가 리처드 미아이가 설계한 해안색 신진 같은 건물로 인상적인 로스앤젤레스의 유명 미술관 게티 센터(Getty Center) 내부. Photo by SY Ko 5 아넨버그 스페이스 포 포토그래피(Annenberg Space for Photography, ASP) 건물 외관. Courtesy of ASP. 6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 근처에 있는 미르시아노 아트 퍼온테(Sean Marciano Art Foundation). 창가지 브랜드 계의 공동 창업주인 모리스와 폴 황재기 프라메이션의 시인인 유서 깊은 건물을 개조해 2017년 연 현대미술관. 출중한 컬렉션을 갖춘 이번이 때론 기이한 미술관인데, 최근 문을 열었다고 공표해 인터넷을 자아내고 있다. Photo by SY Ko



1 미국 건축사에서 이전적 위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 거장으로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가 설계한 홀리호크 하우스(Hollyhock House, 1917~1920)의 내부 거실. 가구와 소품 등에 전반적으로 건축가의 생생한 감성이 묻어났다. 2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한 건축 유산인 이스(Eames House). 깊은 녹음 속에 빛나는 몬드리아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이 집은 옌트 캐스파스디 하우스라고도 불리는 실용적 가옥이다. Photo by Leslie Schwartz © Eames Office LLC. 3 걸음하고 서면된 카메나 레스 토랑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명물 헤이든 트랙트(Hayden Tract). Photo by SY Ko 4 아름다운 건축광석의 재목으로 이름처럼 '집사' 문양이 벽에 새겨져 있는 홀리호크 하우스. 할리우드 지역의 반스달 공원에 있다. 1, 2번 사진 © Hollyhock House 5 이스 하우스와 맞닿은 곳에 자리한 게티 빌라(The Getty Villa). 게티 센터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 뮤지엄 등이 있다. 6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북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패서다(Pasadena) 인근 더 헌팅턴(The Huntington)의 이름 들은 산책길. 조망할 장사가 끝난 도슨과 수만 점 미술품을 품은 미술관, 수려하고 드넓은 정원 등이 있는 지역 명사. Photo by SY Ko 7 푸른빛 건물로 인상적인 웨스트 할리우드의 명소 파시픽 디자인 센터(Pacific Design Center). Photo by SY Lee

Hollywood and...

우리가 흔히 '로스앤젤레스'라고 부르는 '시'는 인근 위성도시를 포함하곤 한다. 패서다(Pasadena), 컬버 시티(Culver City), 산타모니카(Santa Monica), 베벌리힐스(Beverly Hills) 등은 행정구역상 엄밀히 말하면 'The City of Los Angeles'가 아니다(물론 여행 시 그런 구분을 지을 필요는 별로 없고, 이 글에서도 일부 장소는 편의상의 그룹으로 묶었다). 아찔하거나 다운타운이나 웨스트 사이드, 미드-시티를 벗어난 여러 구역에서 문화 예술적으로 주목할 만한 장소를 소개한다. 로스앤젤레스는 엄청난 자본과 산업이 모인 곳인데 건축적인 자취를 출기에도 흥미로운데, 그중 하나는 할리우드 지역 반스달 공원(Barnsdall Park) 중심부에 있는 홀리호크 하우스(Hollyhock House). 현대를 수놓은 건축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대표적인 미야 양식풍 작품으로 비싼 복원 작업을 거쳐 2015년 재개관했다. 건축주인 앨라인 반스달의 이름을 따 반스달 하우스라고도 불리는데, 홀리호크는 이 자택에 사용된 문양인 '집사'를 뜻한다. 주변의 자연환경에 녹어드는 유기적 건축을 추구한 라이트의 건축 철학만이 아니라 그가 디자인한 가구와 소품 등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정작 당시 주인이었던 앨라인 반스달은 이 아름다운 자택을 싫어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 이 부근에 있는 웨스트 할리우드에서는 또 다른 모더니즘 건축가 루돌프 슐러리의 대담하면서도 절제된, 동서양이 융화된 듯한 '슐러 하우스(Schindler House)'를 만날 수 있다. 정사적 스승이기도 했던 라이트의 그늘에 가려진 인물이지만, 이 고택만큼은 슐러리의 의미 있는 업적으로 여겨진다. 웨스트 할리우드에는

건축·디자인 애호가라면 일부러 짚을 내 방문하는 플랫폼인 파시픽 디자인 센터(Pacific Design Center)도 있는데, 건물 단지 안에 파란색 층으로 이뤄진 외관 때문에 푸른 고래(Blue Whale)라 불리기도 하는 건물 덕에 인스타그램의 주요 타겟이다. 아르헨티나 출신 건축가 세사르 펠리(César Pelli)가 설계 작업을 지원했다. 웨스트 할리우드엔 컬버 시티가 있는데, 소니 픽처스의 고향이자 IT 공룡 기업 애플의 음악 사업부나 디자인 스튜디오 등이 많아서인지 젊고 역동적인 기운을 물씬 풍긴다. 컬버 시티의 명물로는 해체주의 건축 느낌이 묻어있는 독특한 맨시로 절로 눈을 사로잡는 일련의 건물이 있는데, 한때 공장 지대이던 지역을 되살리는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할 '헤이든 트랙트(Hayden Tract)'다. 지역 출신 건축가 에릭 오웬 모스(Eric Owen Moss)의 작품. 이쯤에서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가득 품은 해변도 구경할 겸 또 하나의 건축 유산을 볼 의향이 있다면 북서쪽으로 올라가 파시픽 팔리사이드(Pacific Palisades)로 향하면 된다. 건축·디자인사에 길이 남을 이스 하우스(Eames House)가 숨겨진 보석처럼 조용히 자리한 아름다운 지역이다. 칠드 하우스와 레이 이스 부부가 1949년 자신들의 작업 공간 겸 거주지로 지은 건축물. 화려하지 않지만 몬드리아 스타일의 기하학적 디자인과 집안 곳곳을 채운 아지각한 소품, 가구 등이 따스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밖에도 다운타운의 북동쪽에 있는 패서다에는 소비재 기업 프록터 앤드 갬블 창립자 거문의 거울 빌딩으로 주거 건축의 걸작으로 통하는 갬블 하우스도 있다(노턴 사이먼 뮤지엄 등 수준급 미술관도 많은 지역이다).

■ 파시픽 디자인 센터(Pacific Design Center) 주소 8687 Melrose Ave, West Hollywood, CA 90069 웹사이트 www.pacificdesigncenter.com ■ 슐러 하우스(Schindler House and studio) 주소 833 N Kings Rd, West Hollywood, CA 90069 웹사이트 makcenter.org/sites/schindler-house ■ 홀리호크 하우스(Hollyhock House, Barnsdall Art Park) 주소 4800 Hollywood Blvd, Los Angeles, CA 90027 웹사이트 barnsdall.org/tours ■ 더 헌팅턴(The Huntington) 주소 1151 Oxford Rd, San Marino, CA 91108 웹사이트 huntington.org



where to stay 'Cool' in Los Angeles

여행지에서 나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기도 하고, 나를 잘 대해주는데도 웬지 이방인처럼 냉기를 느끼게 하는 공간이 '호텔'일 것이다. 그래서 '여행의 공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숙소로서의 호텔은 여정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인구 중 상당수가 곧잘 낯선 곳에 체류하게 되는 '이동과 이주'의 시대인 만큼, 까다롭게 호텔을 고르는 여행자가 점점 많아지는 건 당연한 현상. 독특하게 차별된 개성과 세련됨을 품고 있으면서도 편안하고 따스한 정서가 묻어나는, 다른 차원의 럭셔리를 원하는 21세기 디지털 유목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호텔도 끊임없이 생겨난다. 로스앤젤레스의 호텔 풍경에 창의성 깃든 색다른 럭셔리 감성을 선사하는 호텔 세 곳을 소개한다.



Firehouse Hotel Arts District, Down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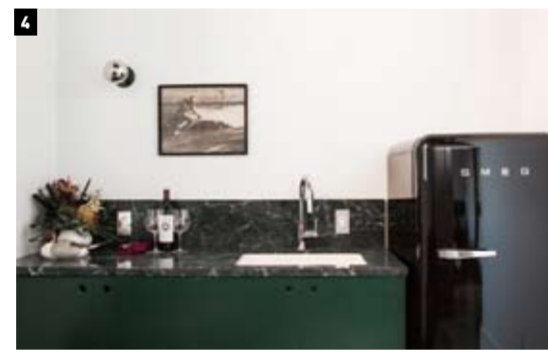
아츠 디스트릭트(Arts District)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다운타운/LA 메트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쿨한' 빈티지 감성이 더 잘게 묻어나고나 할까. '할한' 카페나 레스토랑이 많이 생기는 동네지만 화려한 외양에 치중하기보다는 옛것이 본연의 DNA를 간직한 채 근사하게 부활하도록 하는 도시 재생의 면모가 더 눈에 띄는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지난해 문을 연 파이어하우스 호텔(Firehouse Hotel)은 꽤 호뜻한 부활의 사례다. 이름



이 앞사하듯 이 부티크 호텔은 1927년에 지은 유서 깊은 소방서 건물을 모태로 한다. 그래서 빨간 대문을 단 2층짜리 건물의 파사드에겐 원래 이름인 ENGINE CO. NO. 17이 적혀 있고, 파이어하우스라는 명칭은 길가에 놓인 키가빛 팻말에 쓰여 있을 뿐이다. 하지만 눈썰미 있는 행인이라면 한 번쯤 힐끗 들여다볼 만큼 빈티지한 분위기를 풍긴다. 정겨우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가 펼쳐진 1층 로비에는 아담한 카페와 양중맞은 판매용 디자인 소품이 놓인 쇼윈도 있다. 샌드위치와 커피 등 간단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카페는 아침 7시부터 열고, 캘리포니아의 신선한 식재료를 고수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점심과 저녁 식사, 그리고 해피 아워를 제공한다. 주말에는 건강하고 맛난 브런치도 가능하다. 객실은 단 9개, 레드, 옐로우, 바이올렛, 인디고 등 9개 색상의 명칭으로 불린다. 방은 대부분 2층에 자리하는데, 거실을 따로 둔 스위트룸도 있고 모든 시설을 한데 합친 싱글 마스터 스위트룸도 있다. 아가찌나무 주방과 조리 도구는 모든 룸에 갖춰져 있다. 하지만 '외식도 꼭 계획에 넣어두는 게 좋다. 늘 미식가들로 들끓는 베스티아(Bestia), 바벨(Bavel) 같은 인기 레스토랑들이 이 구역에 있으니 말이다.

주소 710 S Santa Fe Ave., Los Angeles, CA 90021
웹사이트 firehousela.com

1 아츠 디스트릭트의 호텔 풍경에 찬찬히 매력을 더해주는 파이어하우스 호텔(Firehouse Hotel). 세련된 빈티지 감성이 묻어나며 차차 분위기가 다른 9개의 객실이 2층짜리 건물에 들어서 있다. 사진은 바이올렛 룸. Photo by Aaron Haxton. 2 호텔 레스토랑의 운치 있는 야외 테라스. Photo by Danielle Adams 3 호텔 1층의 로비. Photo by Aaron Haxton 4 아가찌나무 주방과 조리 도구는 모든 객실에 갖춰져 있다. Photo by Aaron Haxton 5 코코넛 차아푸딩(Coconut Chia Pudding). Credit: Ren Fuller 6 중동 요리 전문으로 하는 인기 레스토랑 바벨(Bavel).



NoMad Los Angeles Downtown/LA Metro



요즘 미국에서 호텔 생태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이라면 '노매드(NoMad)'라는 부티크 호텔 브랜드를 모를 리 없다. 세련되면서도 시공스러운 도시 감성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브랜드는 시델 그룹(Sydele Group)의 아심직으로 현재 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에 있다. 2018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뱅크 오브 이탈리아(Bank of Italy) 사옥이던 12층짜리 건물 자리에 들어선 노매드 로스앤젤레스(NoMad Los Angeles)는 도심 한복판의 빌딩 숲 사이에서든 하늘을 가까이 올려다보면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루프톱 야외 수영장, 도서관, 이탈리아 스타일의 카페 등을 두고 있는데, 회사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 감성이 묻어난다. 프랑스 출신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지크 기르시아가 설계에 담당했는데, 건물 자체의 역사를 고려해 전반적으로 '호텔'인 감성의 디자인을 추구했다고 객실은 2백41개, 빈티지와 컨템퍼러리의 감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지



The West Hollywood EDITION West Hollywood

체코인을 재촉하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럭셔리 부티크 호텔이 로스앤젤레스에 등장했다. 지난해를, 문을 열지마자 인기를 모으고 있는 웨스트 할리우드 에디션(The West Hollywood EDITION). 웨스트 할리우드의 명소 선셋 스트립(Sunset Strip)에 위치한 이 호텔은 설립 소식이 발표됐을 때부터 화제를 모았다. 부티크 호텔의 창시자이자 호텔업계의 마다스의 손이던 슈라게(Schragel)가 처음으로 미국 서부 지역에 선보이는 작품이다. 1984년 최초의 부티크 호텔로 여겨지는 뉴욕의 모건스 호텔을 세운 이인 슈라게는 메리타임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에디션(EDITION)이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진정성과 독창성, 개성을 갖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된 럭셔리를 지향한다. 웨스트 할리우드 에디션의 등장은 문화적 에너지를 높여주는 도시의 현주소와 잘 맞아떨어진다. 게다가 선셋 스트립은 엘튼 존, 이글스 같은 명성 높은 뮤지션과 예술가가 모인 전설적인 장소 아닌가. '사태를 초월한' 느낌을 영투에 뒀다는 영국 건축가 존 포슨의 설계로 1백40개 객실과 50개의 스위트룸을 갖춘 이 호텔은 무엇보다 환상적인 전망이 돋보인다. 녹음 같은 신라 푸르른 산타모니카의 바다,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마천루까지 이루어지는 360도 뷰는 절로 감탄사를 부른다. 이런 장점을 실려 초록으로 둘러싸인 야외 레스토랑 아더(Ardor)와 사파티(Sappati)는 전망, 따스한 햇살, 특제 리태일을 즐길 수 있는 수영장까지 거느린 더 루프(The Roof) 등이 오감을 만족시킨다. 내면의 웰니스와 뷰티를 엮어낸 스파 시설도 주목할 만하다. 소리와 빛을 활용한 침단 치료, 셀프 가이드 영상 등 전문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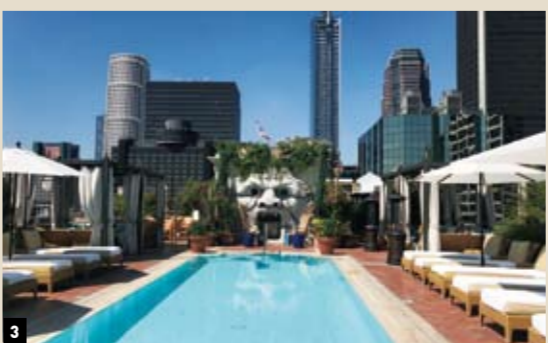
주소 9040 Sunset Blvd., West Hollywood, CA 90069.
웹사이트 www.editionhotels.com/weho/

1 트윈 시대를 선사하는 전망 좋은 방을 정점으로 내세우는 웨스트 할리우드 에디션(The West Hollywood EDITION). 2 노을이 질 무렵의 아름다운 호텔 풍경. 신라 바다, 사파티 아우터는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 선정이 일품이다. 3 싱그러운 녹음이 묻어나는 테라스가 딸린 빌라. 캘리포니아의 명소인 선셋 스트립에 자리한 호텔에게 지역 주변의 자연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썼고, 더불어 호텔 내부에서는 독일 출신으로 L.A.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유명 아티스트 스티븐 루비(Sterling Ruby)의 설치 작품 등 지역적 특성이 담긴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이미지 제공: The West Hollywood EDITION



는 예술가나 오브제는 스튜디오 비폴스(Studio Be-Poles)의 솜씨다. 노매드 호텔이 내세우는 '콘텐츠' 중 하나는 미식의 전당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레스토랑. 노매드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는 뉴욕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일레븐 매디슨 파크(Eleven Madison Park)를 이끄는 스타 요리사로 미국 최우수 셰프로 선정된 대니얼 험(Daniel Humm)이 식단을 담당하고 있다. 다운타운의 부흥과 함께 부쩍 활기를 띠는 도심에 있기에 소풍이나 미식을 즐기기도 좋은 위치. 도보 5분 내 거리에 있는 디저트로 유명한 카페 보테가 루이(Bottega Louie)와 최근 '핫플'로 떠오른 V DTLA 등도 주목할 만하다. 또 근처에는 더 브로드(The Broad),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MOCA) 등 현대미술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주요 미술관도 자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주소 649 S Olive St., Los Angeles, CA 90014
웹사이트 www.thenomadhotel.com/los-angeles



1, 2 빈티지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중심에 있는 노매드 로스앤젤레스(NoMad Los Angeles)의 로비와 객실. 전반적으로 이탈리아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인테리어 디자인이 눈에 띈다. 건축에도 원래 은행 사옥이던 시골의 일산인 신교전주의가 많이 유래했다. Credit: Sydele Group. 3 루프톱에 자리한 야외 수영장. 도시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온다. Photo by SY KO. 4 노매드 로스앤젤레스의 미식 공간 더 레스토랑(The Restaurant)은 뉴욕에서 명성을 날려온 세계적인 셰프 팀이 이끌고 있다. Credit: Benoit Linero. 5 자른 채를 L.A. 다운타운에 문을 열지마자 미식과 엔터테인먼트의 근사한 조합으로 화제를 모은 레스토랑 V DTLA의 내부.

Korean Wave

이제는 '미술 한류'라는 표현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실용 정도로 한국 작가들의 행보는 눈에 띈다. 그래도 세계 주요 도시의 내로라하는 문화 예술 공간이든, 인적은 다소 덜하지만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이든 'K아티스트'를 마주하면 반가운 건 사실이다. 이번 호에는 글로벌 무대를 누비며 저마다 창조적 여정에서 의미 깊은 자취를 남기고 있는 3명의 미술가를 소개한다. 이미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이우환(1936년생), 글로벌 스펙트럼을 무섭게 넓혀가고 있는 이배(1956년생), 그리고 아직은 기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젊은 작가로서 파리 전시를 계기로 커리어의 또 다른 챕터를 열고 있는 민정연(1979년생).



가장과 4방 세계

Lee Ufan

동서양을 아우르며 자취를 남기는 대가의 행보

지난해 프랑스 메츠의 폼피두센터에서는 7개월에 걸쳐 이우환 회고전이 열렸다(2019. 2. 27~9. 30).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할 전시 〈Lee Ufan. Habiter le Temps〉. 196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50여 년을 아우르는 이우환의 조형 언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회고전이었다. 15개의 전시장에서 그의 작업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주제의 질문을 던진다. 그의 첫 작품은 "현재는 그런 세상이 아닌데도, 왜 자꾸 당신은 여전히 존재론적 질문을 던져서 로고스(logos, 보편적인 법칙에 따르는 분별과 이성에서 벗어지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다음 단계로 그의 조각은 "산언찰판 혹은 철봉과 자연(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다. 그의 최근작은 현대미술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능하며, 무엇이 현대의 가장 큰 이슈인지, 그리고 '느낌'과 언어 근간에 있는 미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답을 고민하게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 헤메다 보면, 문득 음악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처음에는 음악의 존재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우환의 작업과 잘 어울린다. 이 음악은 사카모토 류이치(Ryuichi Sakamoto)가 이우환을 위해 작곡한 것이다. 작업과 음악의 근사한 이중주의 울림과 여운이 아직도 울리고 있다. 두 번째, 중국 상하이인 당대예술박물관(PSA)에서는 이우환, 프랑스의 이배 클랭, 중국의 덩이(Dingyi)가 함께한 3인전 〈The Challenging Souls〉가 열렸다(2019. 4. 28~7. 28). 1960년대 이후 문화·사회적 격변을 이겨낸 세 예술가를 비교하며 실험적인 예술운동의 궤적을 조시하는 프로젝트성 전시였다. 특히 이배 클랭과 이우환, 두 거장의 흥미로운 퍼포먼스가 있었다. 이배 클랭의 '심포니 모노톤시일런스(Symphonie Monoton-Silence)(1947~1961)'는 작가 특유의 모노톤 작업법 20분간 모노톤으로 연주하고 또 다른 20분은 침묵하는,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악명 높은 곡이다(존 케이지의 '4분 33초'(1952)에 영향을 준 작품이다). 이우환은 오히려 '이 퍼포먼스가 있어서 아주 좋았으며, 많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했다. 다음으로 이우환은 자연적으로 칠판 위에 올린 유리를 깨는 퍼포먼스 관계항-모먼트(2019)를 통해, 자연(물)이 인류(우리를) 부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술관이 거장을 대하는 자세

세 번째는 현대미술의 성지로 추앙받는 뉴욕 디아 비컨(Dia:Beacon) 미술관에서 지난해 5월 초 막을 연 이우환 상설전. 비컨행 가터를 타면, 출발

관람객들은 이우환의 조각 앞에서 느끼게 조용조용 가늘고, 그의 회화 앞에서는 아예 멈춰 서서 숨소리마저 죽인다.

그런데 정작 작가 자신은 늘 흥충충 뚫듯이 걷는다. 올핸도 네 군데의 주요 미술관에서 초대를 받았으니 그의 걸음걸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중 하나만 소개해도 자연이 부족할 정도로 각각의 전시 규모가 꽤 크다. 뭘 고를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욕심을 내 모두 소개하기로 했다. 네 전시가 저마다 다르고 또 중요하기에.

직후 5분가량 어두운 터널만 지나가다가 갑자기 강과 산이 눈앞에 환하게 전개된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얗다라는 기와비타 아스나리의 소설 〈설국〉 첫 문장이 겨울이 아닌, 가을의 단풍 버전으로 재감된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맨해튼의 수직적인 고층 빌딩 숲에서 갑자기 수평의 세계로 들어서는 반전의 충격도 있다. 인드레아스 가스키의 사진 작품 라인망이 재현되는 듯하다. 이 미술관이 기존에 자리했던 맨해튼을 버리고 비컨 지역으로 갈 만한 설득력을 내뽐는 아름다움이다. 디아 비컨의 명성을 악히 하는 자라 잔뜩 기대를 했는데도 그 기대를 넘어설 정도로 전시는 훌륭했다. 네 번째로는 워싱턴의 하사현 미술관에서 지난해 9월 말에 시작해 오는 9월 13일까지 거의 1년에 걸쳐 계속되는 전시 〈Open Dimension〉. 아외에 '관개항' 연작 10점과 신작 회화 〈대화〉(2016~2019) 4점이 전시되고 있다. 하사현 미술관은 이우환의 전시를 위해 기존에 설치 작품을 모두 치우고 야외 공간 전체(1만7,402㎡)를 그에게 제공했는데, 이처럼 한 작가에게 공간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미술관 개관 45년 만에 처음이라고. 팔자가 하사현 미술관을 방문한 시기는 10월 말. 워싱턴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산언찰판의 상징인 철봉과 자연의 상징인 돌 사이에는 태양에서 방금 떨어져 내린 듯한 황금빛 낙엽이 여자가 놓인 채 산업과 자연의 관계를 자유롭게 있었다. 작가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연이 부드럽게 대답을 건네는 듯한 신기한 광경이다. 그의 작업은 장소 특정적(site-specific)일 뿐만 아니라 시간 특정적이기도 하다. 다른 관람객이 들어오는 순간, 이 조각 작품들은 마치 애초에 하사현 미술관 건물과 함께 만들어진 것처럼 잘 어울린다. 아주 조금만 돌을 돌려놓아도, 철봉의 길이가 조금만 더 길거나 짧아도 이런 울림은 없었을 터. 완벽한 바로크 양식을 적용한 베르시유 궁전에서 그러했듯, 이우환은 미국의 '완벽한 현대적 건축물인 하사현 미술관에 다른 공간을 붙여넣어 완벽을 넘어서게끔 균형을 일으킨다. 빠르고 바빠 돌아가는 시대에 그는 사람들이 낯선 공간에 멈춰 서서 생각하도록 하며,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주변 공간을 열어 보인다. 그렇게 그의 방식으로 미술을 통해 그는 문제를 제기한다.

미술관 전시 외에도, 이우환의 존재감은 여기저기에서 발휘되고 있다. FIAC 을 계기로 그랑 팔레와 프리 팔레에도 그의 작품들이 설치되어 화제를 모았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현재의 이슈가 무엇인지 알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몇 차례나 강조했다. 바로 이러한 작가들 덕분에 빌트 벤아인은 "현대미술에 관심은 갖는다"는 것은 [...]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을지.



1 이우환, 'Relatum'(formerly 'Iron Field', 1969/2019). 뉴욕 디아 비컨 미술관 전시 풍경. Photo by Sim Eunlog, Courtesy of Lee Ufan. 2 미국 워싱턴 D.C의 하사현 미술관(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에서 열린 이배 〈Lee Ufan: Open Dimension〉 전시 풍경. Photo by Sim Eunlog, Courtesy of Lee Ufan. 3 이우환, 'Relatum'(formerly 'Language', 1971/2011). 뉴욕 디아 비컨 미술관의 전시 풍경. Photo by Sim Eunlog, Courtesy of Lee Ufan. 4 이우환, '관개항' 연작 중 'Relatum - a Corner'(1981/2019). 2019 FIAC 아트 페어 기간에 프리 팔레에 설치된 작품. Photo by Sebastiano Pelloni di Persano, 이미지 출처: 국제갤러리



뉴욕 갤러리 페로랑에서 열리고 있는 이배(Lee Bae)의 전시 〈Promenade〉. 2층 전시장으로 올라가면 숲나무로 이뤄진 신비로운 숲이 펼쳐진다. 전시명처럼 그 안을 '신박하더라도 대체로운 컬러의 바깥 세상에서 갑자기 고요한 흑백의 신호로 접어들게 된다. 각각의 숲덩이는 나무 한 그루에서 비롯됐다. 가지나 뿌리 없이 나무 한가운데에 있는 몸통으로만 만들어졌다. 불꽃이 지나며 모든 색을 흡수했기 때문일까? 이 덩어리는 실제 나무보다 단순한 형태와 단색조를 띤, 추상적인 면모를 품고 있다. '생소함' 속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끄집어내는 듯한 '친근함'이 느껴진다. 디지털 시대에 개림미술과 팝아트에 묻혀 있고 있던 '경외감'이라는 씨앗이 T. S. 엘리엇의 시를 인용하자면 '굳은 땅을 뚫고 고개를 쳐들고 있다'. 어떻게 일개 숲덩이가 오랫동안 느껴지지 못했던 이 미묘한 감정의 출처가 될 수 있는 걸까? 20여 년간 한결같이 숲으로 작업해온 '숲의 작가' 이배가 대답한다. "20년 전, 파리에서 우연히 숲을 발견해서 사용할 때는 값싸고 구하기 쉬운 미술 재료였기에 숲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숲이 미술 재료로 사용되지만, 이제는 이 숲이라는 물성을 통해 세계와 나, 또는 관람객을 연결하고 싶어요."

신비한 카르나크의 거석(巨石)에서 받은 영감

그렇다면 이배가 숲을 매개로 관람객과 함께 만나고 싶은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가 꽤 세심한 설명을 건넨다. "숲 조각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불과 만나, 불에 의해 조형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제가 한 일은 아슬아슬하게 무너지고 부서지려는 것을 끈으로 묶어 불이 만들어낸 최초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 조력한 것입니다. 회화보다는 조각에서 좀 더 '사건화'가 이뤄지는데, 숲 그 자체는 불의 카오스적인 면을 활용하고 도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자연에서 오는 힘과 그 흔적, 사멸을 보여주지요." 그는 이번 뉴욕 전시를 위해 숲 작업을 하면서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명물로 5천여 년 전 세워진 카르나크의 거석(Alignements de Carnac)을 떠올렸다고 했다. 육중하고 큰 돌이 4km에 걸쳐 줄지어 뻗어 있는 신비한 열석 덕분에 거석문화의 백미로 꼽히는 마을인 카르나크. 이배 작가는 그 근처에 있는 도맹 드 케르케케 미술관에서 2016년 전시를 갖기도 했다. "이 거석들은 일반적인 돌들과 달리 애너지가 있어요. 카르나크 사람들에게 돌들이 왜 그렇게 놓인 것 같고요 몰으니, '에너지가 모이고 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병자들이 그곳에 가서 누워 있으면 치유가 되는 역할을 거석이 했을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이 거석들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옛날 정도에 있는 우리 집 앞에도 이런 돌들이 있었습디다. 숲도 그러한 부분이 많지요." 당시 수천 개의 카르나크 거석(巨石)들이 놓여 있는 길 사이를 '신책'했다는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멸의 자연 원소와 동양의 오행에서 '불'은 원소 중에서도 가장 동적이며 카오스적인 성격을 띤다. 구체적인 형상 때문에 사구의 근본적인 4선에는 속하지 않는 '나무'는 오행에서는 불을 만들어내는 '기운'이며, 작가는 이를 돕는 '조력자'다. 그리고 불에서 탄생한 숲은 변화를 지고 있으며 유기적인 부분을 많이 품고 있다. 이배 작가에게 카르나크(아티더)를 얼음에서 시작해 청동(실제 제작)을 거쳐 뉴욕(작품 설치)까지 이어온 과정 자체가 변화이자 창조적 여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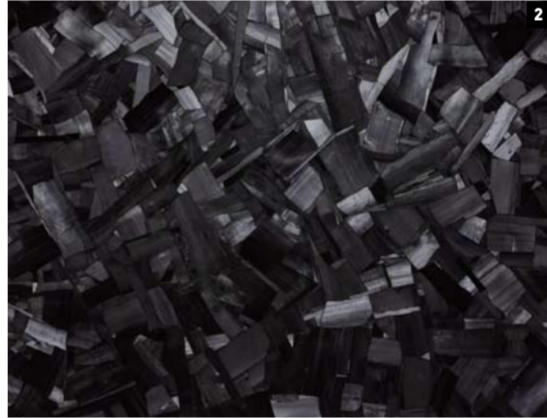
치유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숲의 숲 산책

이배 작가는 신대륙의 뉴욕 한가운데에서, 무한히 압축된 검은 거석(숲나무) 사이를 거니는 산책에 초대하고 있다. 전시 공간의 바닥은 모두 한자로 도배되고 그 위에 검은 숲나무가 자리잡기에, 관람객들은 3차원의 신수화 안에서 거니는 듯하다. 작가는 한지는 공간을 중화할 뿐만 아니라 조명을 흡수해 넓고 부드럽게 묘한 공간을 생성한다고 말한다. 하얀 패턴치트기 된

숲, 검은 불꽃

Lee Bae

근대미술에 철학하게 반대한 미르셀 뒤샹은 1917년 뉴욕에서 감성야망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삭말라 비틀어진 개념을 전사했다. 그가 앙더뎡뎡전에 제출한 뒤존힌 소변기 '샘'(1917)이 바로 그것이다. 이어 20세기 중반에 큰 물결을 일으킨 팝아트는 많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몸을 한껏 낮췄다. '알 수 없는 것은 아직 과학이 덜 발전했기 때문이고, '이미 아는 것은 정복된 것'처럼 여겨진다. 뒤샹의 '샘'이 뉴욕에 등장한 지 1백2년이 되는 시점이 흐른 오늘날, 이배 작가는 같은 도시에 거대한 숲 덩어리를 설치하고, 이 물성을 통해 카오스의 잠재력을 가져다준다.



1 이배, 'Untitled'(detail, 2019). Courtesy of Lee Bae and Galerie Perrotin. 2 이배, 'Issu du feu'(ch-61, 2003). Courtesy of Lee Bae and Galerie Perrotin. 3 갤러리 페로랑 뉴욕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배 작가의 개인전 〈Promenade〉 전시 풍경(2019). Photo by Guillaume Ziccarelli, Courtesy of Lee Bae and Galerie Perrotin

벽으로 상징되는 사구권 화이트 큐브의 철저한 공간과는 또 다른 동양적인 질서가 묻어면서 장소의 특성이 상당 부분 사라진다.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시인이자 철학자인 가스통 바슐라르는 불을 가리켜 '극단적으로 살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불이 나무를 통째로 훑고 가면서 남긴 '숲'은 검은 불꽃이다. 숲이라는 물성을 통해 이배는 카오스의 잠재력, 카오스 같은 미지의 덩어리를 뉴욕에 설치한 셈이다. 그러므로 관람객들은 숲의 숲을 신책하면서 미지의 덩어리에서 각자가 찾고자 하는 불씨를 담아올 수도 있다. '치유'를 불러일으킨다는 카르나크의 거석 이야기 때문일까? 필자가 숲의 숲을 거닐면서 마주한 감정은 신, 자연,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었다. '경외감'은 어떤 대하나 이상적 설득보다 가장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다면, 현대의 기후 이슈를 비롯한 많은 난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다면,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전쟁, 인종차별주의 등의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에 다른 아닌 것이다. 바슐라르가 〈몽상의 시학〉에서 인용한 앙리 보스코의 시가 이배 작가의 설명을 잘 함축하는 것 같다. 불들은 우리의 가옥에, 아주 오래된 추억 너머에서 정들어 있는 태고의 삶이 우리 속에서 그 불꽃으로 깨어나서, 우리 비닐스러운 낮의 가장 깊은 나라를 깨워줄 만한 힘을 행사한다.



현대적 설화

Min Jung-yeon

이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민정연 작가에게 올해는 아주 큰 의미로 남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주 활동 무대인 프랑스에서 상당히 뜻깊은 전시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의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에서 진행 중인 전시 <Carte Blanche à Min Jung-yeon>. 아저는 작가로서의 여정이 길게 펼쳐질, 현재가 과도기일 수도 있는 젊은 나이지만, 그동안 '신화'들이 도약하는 플랫폼이 되어온 기메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는 작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1, 3 파리의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에서 진행 중인 민정연의 전시 <Carte blanche à Min Jung-yeon>. Photo by Thierry Olivier, Courtesy of Min Jung-Yeon & Galerie Maria Lund, Paris. 2 기메 박물관의 개인전에 선보이고 있는 민정연의 작품 <Tissage/fragment, 2019>. Photo by Thierry Estrade, Courtesy of Min Jung-Yeon & Galerie Maria Lund, Paris 4 민정연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 건물 외관. Photo by Sim Eunlog.



민정연은 파리의 한 자하철에서 질 들리즈와 펠릭스 기타리가 쓴 <천 개의 고원>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작가다. 특히 '늑대인간' 대목에서 감동해 찾아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많은 독자들이 '심오하고 자적인 내용(혹은 사상)에는 감정이 사라진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플라톤부터 근대까지 이어온 유산으로, 가장 큰 시대적 착오 중 하나다. 더욱이 프랑스 사상가들의 언어(혹은 그 이따금 때문)에 감동이 배어 있다. 그렇기에 철학자 베르그송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점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프랑스식 감성적 자상과 한국식 지적 감성의 경계를 잘 조절할 줄 안다는 평가를 들어온 민정연 작가의 전시 <Carte Blanche à Min Jung-yeon>이 열리고 있는 기메 박물관(2019. 11. 6~2020. 2. 17). 마지막 층에 위치한 원형 홀 전시장에 들어가면, 가을 천으로 벽과 천장이 도배되어 있고, 나무를 연상시키는 2차원의 긴 그림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다. 마치 가을 숲 같다. 사물을 명료하게 반사하는 가을과 달리, 가을 천은 다소 흐릿하게 반사한다. 2차원 나무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길고 긴 바다에 섬들이 뜨듯 떠 있다. 마이크로 세계인 나무 안에 매크로 세계인 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는 가을 천을 통해 또 다른 제3, 제4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반사되는 똑같은 가을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 각각 다른 설화가 가을 천의 세계를 통해 펼쳐진다. 다른 벽에는 거대한 회화 작품 안에 긴 깃털의 불꽃같은 날개가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사이사이로 조금 전에 본, 같은 모양의 2차원 나무 숲이 펼쳐진다. 그리고 나무도 날개도 점점 더 희미해지면서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파리에 펼쳐 보인 신비로운 가을 숲

사실 그녀의 설치 작품 사이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미완성의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관람객이 들어가자마자 작품은 생기가 돌고 동적으로 변한다. 회화와 설치 작업, 한 작품과 또 다른 작품, 전사와 관람객이 서로 엮어가는 것이다. 관람객이 참여하는 작품이 아니라 작가의 표현처럼 '관객이 작품의 일부가 되어간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작가만이 알 수 있는 전유물도 아니다. 관람객도 가을 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이 움직이면 작품이 다른 모습으로 가을 천을 통해 보이며, 작품은 관람객에 따라 재구성되고, 공간을 담아내며 깊이를 더해간다. "이미 정해진 내레이션을 있는 신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바는 작가가 창작한 설화(conte, fable)적 배경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듯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설화적인 낯선 무대로 관람객들이 들어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길 바랍니다." 민정연 작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물을 반사하는 가을이 아니라 몽환적인 느낌이 나도록 가을 천을 사용한 이유도 명료한 현실이 아니라 설화적인 신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특유의 몽환적인 개성은 확실히 뚜렷한 각성이나 좌절을 주지는 않지만, 설명을 자아내는 면모가 있다. "현 미술계에는 작품이 너무 어려워져서(뜻밖에도는) 글로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말 설명, 비평이 사라지면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부가적인 말이 필요 없이 관람객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생각할 필요 없이 너무나 가볍고 노력 없이 소통을 가능케 하는 가벼운 작품은 자랑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는 '소통일 뿐이지 예술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술로서 도모하는 여러 차원의 '화해'

작가는 이러한 소통과 관련해 현대와 미술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화해(reconciliation)'라고 규정한다. 우선 그의 작업은 르네상스시대를 포함한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의 공간적 화해인 '2차원과 3차원의 화해'를 보여준다. 특히 작가는 작품 속에 관람객이 들어와 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그동안 너무 멀어졌던 '관객과 작품의 화해'를 요청한다. 이 바깥에 또 다른 여러 차원의 화해를 열거한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의 화해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선 남한과 북한 가치관의 화해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프랑스와 한국의 가치관에 대해 더 많은 소통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각각의 사람들마다 겪었을 좋은 기억과 트라우마의 화해가 이뤄지기를 바라구요." 이러한 화해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서 나오는 이도 저도 아닌 화색의 '멜랑주(mélange, 혼합)'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작가는 강조한다. 흰색과 까만 색상을 섞으면 본연의 색을 유지하면서도 앞서는 화색으로 보이는 식의 어우러짐, 다시 말해 노·장자의 철학처럼,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역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시의 설치 작품명이 '직조(tissage)'인 이유다.

훌륭한 작가들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작가의 '새로운 단계의 개념(혹은 미술 철학)을 보여주는 전시와 '이들 작업으로 속성사시키는 전시가 교차되곤 한다. 이번 민정연 작가의 기메 전시는 작품보다 작가의 개념 자체를 명료히 보여주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다음 전시가 기대된다. '힘이 너무 세서 치아가 모두 빠지더라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새 치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글 심은택(미술비평·기획가) edited by 고성연

Thought-Provoking

서구권과 비서구권에서 자신만의 시선과 방식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온 작가들의 전시가 열려 주목된다. 아랍 문화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와엘 샤키(Wael Shawky), 그리고 스스로를 언어 예술가라고 소개하는 비디오아트의 거장 게리 힐(Gary Hill). 전자가 서정 시인 같은 감성을 품고 있으면서도 날카로운 성찰을 불러일으킨다면, 후자는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되 화이트 큐브인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다. 영상 언어의 감성은 다르지만 둘 다 지적이면서 은근히 강렬한 매력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고의 틀을 흔든다. 두 작가의 전시를 맡은 각각의 큐레이터가 소개한다.



두 세계가 만날 때 Wael Shawky

과연 문이 열릴까 싶은, 안이 보이지 않는 건물.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푸른색 공간이 펼쳐진다. 메탈릭 톤의 푸른 벽은 영상의 푸르름 빛과 만나 시공간을 흐리는 듯 모호한 공간을 자아낸다. 나지막한 아랍어 내레이션을 함께 흐르는 이 공간은 외부와 단절된 채 온전히 작가가 만들어낸 '사실'과 '신화'가 만나는 중간 영역이 된다. 신비한 서정시 같은 영상 언어를 구사하면서 도 역사적 사실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이집트 현대미술 작가 와엘 샤키(Wael Shawky).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이 아닐까 싶은 이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옮겨올 때는 그를 개인전과 그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서울 상형동에 자리한 갤러리인 비라캇 컨템포리라는 한국에서 서의 첫 개인전 <알 아라비 알 마드푸나(AI Araba Al Madfuna)>를 진행 중 이고, 중동 현대미술을 조망하는 서울시립미술관(서소문)의 전시 <고향에서 도 그를 소개하고 있다. 전시 제목과 같은 알 아라비 알 마드푸라는 작품은 작가가 이집트 북부 동명의 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사연의 주술로 산대의 보물을 찾아내는 마을 주민들의 발걸음에 참여한 경험에서 시작됐다. 그 낯선 경험은 아이의 모습에 성인의 모습을 병치한 몽환적인 영상으로 재탄생한다. 영상에서 나오는 내레이션을 이집트 소설가 모하메드 무스타피의 <해바라기>라는 단편소설에서 차용했다. 벌살모가 없애 해바라기는 그 씨를 깨는 오라적인 요소를 발견하며 저역적 기능과 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마을의 모든 경작물을 대체하게 된

다. 결국 모든 농작물과 가족이 사라지며 폐허가 되는 디스토피아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설정이다. 영상의 푸르름 빛과 푸른 벽은 서로 다른 2개의 이야기로 병치되며 묘한 긴장을 자아낸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작품 '카베라 십자군(Cabare Crusade)'은 와엘 샤키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대표작이다. 아랍의 시선으로 보는 십자군 이야기지만, 작가는 한층의 일방적인 시선을 강요하지 않는다. 섬세하게 설정된 미묘메트와 배경으로 진행되는 인형극은 어떤 신인간의 클리에도 갇히지 않은 채 역사가 갖는 처연함과 고통을 오히려 생생하게 전달한다.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만들어내는 그의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는 다시 쓰기(리라이팅)이며, 더 나아가 후대에 누군가의 관점으로 쓰였을 역사의 허구성에 대한 예리한 고발이기도 하다. 두 전시 공간은 작가의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듯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언제나 역사와 신화, 사실과 허구, 진실과 환상,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을 창작한다. 어떤 것은 사실, 혹은 허구라고 확인할 수 없다. 전시장으로 들어가며 우리는 자연스레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된다. 그것은 낯선 이야기의 역사에 대한 것일 수도, 한 마을의 신화적인 이야기 일 수도, 또는 작가의 무의식이 표현된 신비로운 페인팅과 드로잉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만나 보지 않았던 세계와의 접합이고, 그러하여 우리 안에 무지의 영역이던 공간에 빛을 밝혀주는 것이다. 글 박소현(큐레이터) edited by 고성연



1 서울 상형동에 자리한 갤러리 비라캇 컨템포리에서 이집트 작가 와엘 샤키(Wael Shawky) 개인전 <알 아라비 알 마드푸나(AI Araba Al Madfuna)>가 열리고 있다. 3부작 영상 작품 중 알 아라비 알 마드푸나 II(2016)를 상영 중이다.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한 신작 드로잉과 페인팅 작업도 선보인다. 전시는 1월 31일까지. 2 와엘 샤키, 알 아라비 알 마드푸나(2019). 캔버스에 유화, 150x120cm. 1, 2번 이미지 제공: 비라캇 컨템포리 3 와엘 샤키, 서울시립미술관(SeMA) 서소문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중동 현대미술 그룹전 <고향(gohyang: home)> 설치 모습(2019). SeMA의 비서구권 시리즈 중 번째 프로젝트로, 오는 3월 8일까지 계속된다. 이미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찰나의 흔적 Gary Hill



가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신작을 발표하며 세계 무대를 활활고 있는 그는 이번 전시를 위해 수원을 찾았다. 1951년 캘리포니아 샌타모니카에서 태어난 게리 힐은 초기에는 조각을 했지만 여러 매체를 접하면서 방향을 틀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시공을 바탕으로 영상과 텍스트를 활용한 미디어 작품을 발표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1972~73년에 뉴욕에 있던 피플스 비디오 시아터(People's Video Theater)가 옮겨와 우드сток 커뮤니티 비디오(Woodstock Community Video)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 당시 그곳의 디렉터 켄 마시(Ken Marsh)를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최초의 비디오카메라인 소니 오리자널 포타 맥(Porta-pak)을 보여줬는데,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비디오라는 매체를 조각과는 전혀 다른 사유 방식을 경험했어요." 이후 그는 언어와 이미지, 단어와 발음의 상호성에 치중한 작업, 설치 작품과 관객의 상호작용으로 사유를 확장하며 신작을 선보여왔다. 그런데 요즘은 그는 자신을 규정해온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타이틀마저 스스로 해체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비디오로 무엇을 표현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 매체는 그런 분류가 적용되지도 않고요." 작품에서 개념성을 중시하기 이전 자신의 작업을 퍼포먼스와 더불어 '비매체(non-medium)' 범주에 넣고 싶어 하는 생각이 다분히 엿보이는 그는 '행구자'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앞으로 많은 작품들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만들어질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언어유희에서 가장 강렬하고, 본능적인 경험을 얻기도 합니다. 언어와 발음의 공극의 '술이죠.'" 평생을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매체 속에서 활동해온 작가가 텍스트를 거둬 강조한다. 길은 보다는 매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어쩌면 가장 단순한 진리가 아닐까. 글 박소현(큐레이터) edited by 고성연

정조태양의 흔적이 깃든 화석항공 옆에 자리한 수원시립미술관은 드물게 사선 형태의 벽을 갖춘 현대적인 노후 콘크리트 건물이다. 전면부는 짙은 색의 커튼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개방감을 주지만, 밝은 빛은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선풍 다가가기 힘든 인상이었지만, 일단 내부에 들어서면 온기를 품은 공간 속에 느낌이 달라진다. 게다가 시원한 유리창을 통해 사이에 들어오는 행공 광장, 그곳을 걷는 사람들의 풍경이 작은 휴식을 선사한다. 특히 울거울에는 미드 이트에서 날다든 자취를 남기는 거장 게리 힐(Gary Hill)의 영상과 사운드기가 이 공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오는 3월 8일까지 진행되는 <게리 힐: 찰나의 흔적>은 작가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온 흥미로운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영문 제목 'Momentombs'는 moment(찰나), momentum(가속도와 톱바퀴)의 합성어. 게리 힐은 백남준에 의해 비디오 아트가 탄생했던 초기인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언어와 신체, 이미지, 공간의 형태 등 다양한 주제로 작업을 해온 작

1 게리 힐(Gary Hill), '순으로 듣는(Hard HearD)'(1985~1986),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게리 힐: 찰나의 흔적> 전시장 풍경. 2 백년 작품(Wall Piece)(2000)의 한 장면. 게리 힐 전시는 오는 3월 8일에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미지 제공: 수원시립미술관

스크린이 춤을 춘다. 햇빛의 결실 같은 풍요로운 노란색이 하늘을 물들이고, 푸른 말발이 피노처럼 실랑이는 프랑스의 눈부신 자연이 추는, 느릿하고 우아한 춤이다. 그에 맞게 춤을 복돋는 음악은 재니스 조플린의 '코즈미 블루스'. 처음부터 강렬하게 사선을 사모집은 이서정적인 풍경을 이루는 이미지들은 꽤 낫다. 다음 아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가 프랑스에 머물던 시절에 그린 풍경화인데, 그중에는 '씨 뿌리는 사람'(1888) 같은 명작도 있다. 추북의 춤을 추는 말발이 스스로 사자면 어둡고 우울한 프랑스 북부 지방으로 배경이 바뀌면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작품 감자 막는 사람들(1885)이 등장한다. 이윽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반 고흐가 많은 명작을 남긴 남부의 도시 아를(Arles)에서 완성한 '해바라기'(1888)가 스크린을 장악하고, 근사한 파리 풍경도 펼쳐진다. 이런 식으로 벽과 바닥 등에서 음악을 배경으로 뛰노는 이미지들의 향연을 즐기노라면 30여분이 그립로 낚시이다.

제주에 찾아온 반 고흐, 서정성과 역동성을 품은 몰입형 전시

이미도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에게 가장 애뭇한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가 아닐까 싶은 반 고흐. 그가 걸었던 짧고도 애달픈 삶의 여정을 꿈틀 꾸듯 거닐 수 있는 전시 '빛의 별까: 반 고흐'가 막을 올렸다. 클립트를 내세운 개관 전시 관람객 56만 명을 동원하면서 제주 성산의 명소를 자리매김한 '빛의 별까(Bunker de Lumières)'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전시(오는 10월 25일까지). 3D 음향을 갖게 살리는 아이믹스(AI MIX) 기술을 반영하고 콘텐츠에 묘하게 어울리는 탁월한 음악 레퍼토리가 저절로 공간에 녹아들면서 강한 몰입감을 자아내는 체험형 전시는 요즘 반반하게 쏟아지는 수많은 미디어아트 의 물결 속에서도 단연 뛰어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프랑스 남부 레보드 프랑스의 폐쇄된 채석장을 무대로 한 '빛의 채석장', 파리에 있는 '빛의 아틀리에'에 이어 아직까지는 제주에서만 접할 수 있는 21세기형 콘텐츠(프랑스 문화 예술 기업 컬처스페이스와의 제휴로 제주 전시장을 꾸렸다). 세 전시장의 공통분모는 버려진 공간에 소생의 숨결을 불어넣어 만든 재생의 미학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화가로서는 10년 정도의 짧은 커리어를 쌓았고, 생전에 단 1점의 그림만 팔았지만, 워낙 열정적으로 작업에 임했던 반 고흐는 꽤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번 전시에는 8백여 점의 회화와 1천여 점의 드로잉을 동원해 풍부한 콘텐츠를 자랑한다. 축구장 절반 크기인 넓은 공간(약 2,975㎡, 9백 평)의 벽, 바닥에서 펼쳐지는 특유의 강렬한 빛 터져와 질감, 대담한 색채의 파라이드가 절로 눈길을 빼앗는 동시에 마치 애달픈 그의 인생 여정을 함께하는 듯한 애수 어린 서정성이 마음을 건드린다. 그가 작품 활동을 주로 했던 프랑스의 여러 도시와 파리 등을 거쳐 생을 마무리한 오베르쉬르우아즈(Auvers-Sur-Oise)의 까마귀가 나는 평원으로 갈무리하는 순서(맨 끝에는 에펠르그도 있었다)와 더불어 스페르나, 푸치니, 미셀스 데 아리아스, 비발디 등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 스펙트럼이 이러한 강동의 밑도에 큰 몫을 하지 않나 싶다. 아를다워져 더 서글픈 듯한 고흐의 소가 막을 내려도 끝난 게 아니다. '고흐' 하면 자주 연상되는 또 다른 위대한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이 기다리고 있다.



강렬하고 고풍적인 고갱, 글로벌 최초 공개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갱은 친한 친구 사이였던 고흐가 그와 다름 끝에 귀를 자른 유명한 사건 덕분에 자주 회자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19세기를 찬란하게 수놓은 세기의 예술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갱 편이 10분'이라는 그는 단편이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지만, 짧아도 임팩트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고갱의 대표작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1897)를 비롯해 열대 숲에서 드러나는 타히티섬의 여인들, 사탕수수밭인 브르타뉴(Bretagne)의 시골 풍경 등 특유의 웅장하고 원초적인 강렬함을 품은 이미지들이 사선을 인도한다. 고갱 편은 그동안 시골, 클립트, 르네상스 가장 등 역사 속 대가들의 전시를 마련해온 컬처스페이스에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한 콘텐츠. 어쩌면 내겐에게는 한국 예술사에 획을 그은 화가의 작품 세계를 빛의 별까 전시장을 통해 접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글 고갱편 제주 성산 차재



Van Gogh & Gauguin

지구촌을 휩쓰는 '문화 아이콘'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그리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천재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을 '몰입형 미디어 아트'라는 평범하지 않은, 아주 즐거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그림 같은 경치를 병풍처럼 두른 제주에 오렌 시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 병커를 다수의 빔 프로젝터와 스피커를 설치한 근사한 전시장으로 탈바꿈시킨 '빛의 별까'. 마치 "산책하듯 그림을 즐길 수 있는, 사진 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음악과 함께 빠져들도록 기획됐다"는 큐레이터의 말에 수긍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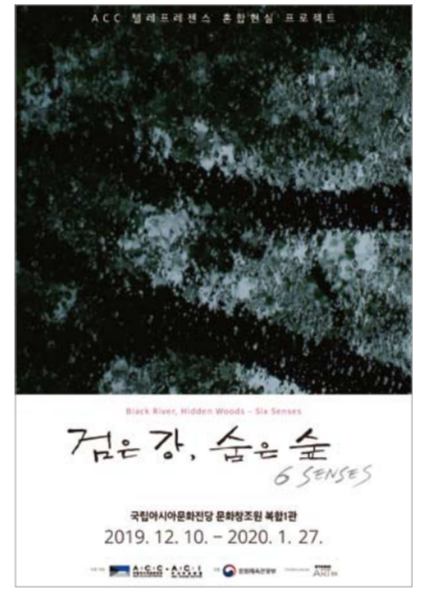
1, 2 세기의 예술가들이 남긴 명작을 음악과 동적인 이미지가 절묘하게 아우라진 색다른 방식으로 즐기게 해주는 몰입형 전시 '빛의 별까: 반 고흐'가 2019년 12월 초 제주 성산의 전시장에서 막을 올렸다. '빛이 빛나는 밤'이라는 부제를 단 이번 전시는 고흐의 주옥같은 작품들과 생생하게 묘사한 음악의 조화가 일품이다. Photo by SY Ko 3 성산 시가지 32분가랑 도는 반 고흐 편이 끝난 뒤 폴 고갱(Paul Gauguin)의 작품을 담은 10분짜리 전시기아 이어진다. Photo by SY Ko 4 제주 성산의 문화 예술 명소로 떠오른 '빛의 별까'. '키스의 화가' 클립트를 내세운 개관전이 무려 56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했다. Photo by SY Ko

Remember the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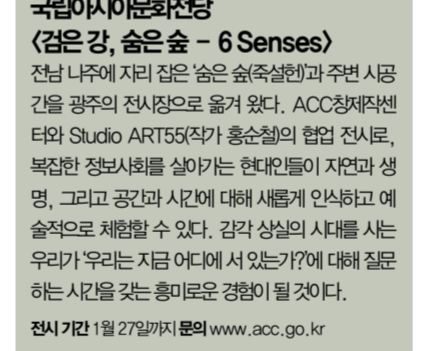
창조적 내러를 펼쳐가는 국내 신진 작가들은 물론 20세기와 21세기를 수놓은 세계적 조각 가장, 동시대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작가의 전시까지. 2020년 초반에 잠시나마 추위를 잊게 해줄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소식.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백진 개인전 (파편)
도자 설치라는 전통적 매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다양하게 표현하는 백진 작가의 개인전. 전시 제목 '파편'은 작가의 작업 방식과 의도를 모두 담고 있는데, 흰 도자 파편이 유기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통해 도자의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기둥처럼 높이 쌓아 올린 설치 작품을 비롯해 3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 3월 8일까지 문의 www.arariomuseu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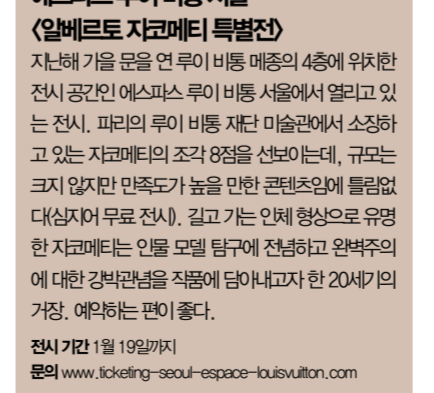
알부스갤러리 <색과 함께하는 재미난 이야기>
일라스트레이터 겸 판화 작가 윤주희의 첫 개인전.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해 주로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는 윤주희 작가는 그동안 5권의 책을 출간했다. 그중 최신작인 'Up down Inside out'과 한국에 첫 번째로 번역·출간된 'Supposing'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이번 전시를 위해 추가 제작한 '블록프린트'와 작가 개인적으로 함께 공개했다.
전시 기간 2월 9일까지 문의 http://albusgalle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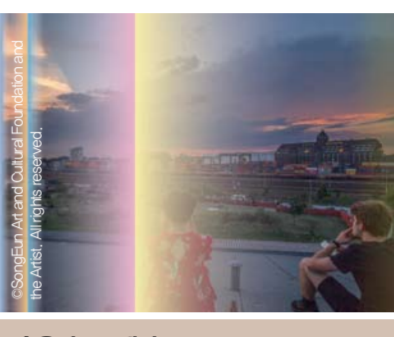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검은강, 숨은 숲 - 6 Senses>
전남 나주에 자리 잡은 숨은 숲(죽산)과 주변 시공간을 광주의 전시장으로 옮겨 왔다. ACC창체작센터와 Studio ART55작가 홍순철의 협업 전시로, 복잡한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연과 생명, 그리고 공간과 시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예술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감각 상상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전시 기간 1월 27일까지 문의 www.ac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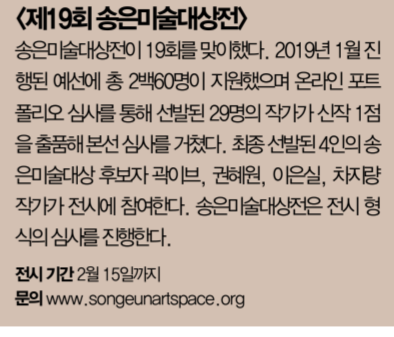
에스페이스 루이비통 서울 <일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자네게 기을 문을 연 루이비통 매장의 4층에 위치한 전시 공간인 에스페이스 루이비통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파리의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코메티의 조각 8점을 선보이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만족도가 높을 만한 콘텐츠임에 틀림없다(산자어 무료 전시). 길고 가는 인체 형상으로 유명한 자코메티는 인물 모델 탐구에 전념하고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을 작품에 담아내다 한 20세기 가장. 예뻐하는 편이 좋다.
전시 기간 1월 19일까지 문의 www.ticketing-seoul-espace-louisvuitton.com



갤러리 현대 <인물 초상 그리고 사람 - 한국 근현대인물화>
갤러리 현대에서 2020년 개관 50주년을 기념해 한국 근현대 인물화를 재조명하는 전시. 1910년부터 2000년대까지 1백여 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미술을 인물화라는 장르를 통해 집중적으로 상설한다. 한국의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이음과 격하는 시대의 풍경을 담은 작품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3월 1일까지 문의 www.galleryhyunda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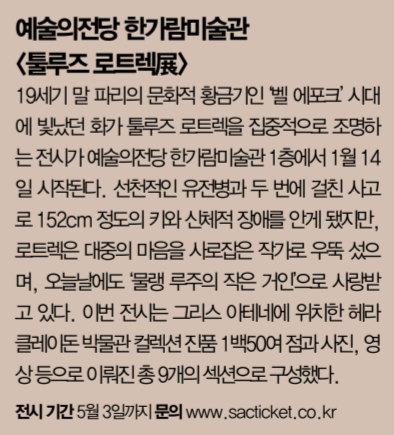
송은아트스페이스 <제19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미술대상전이 19회를 맞이했다. 2019년 1월 진행된 예선에 총 2백60명이 지원했으며 온라인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선발된 29명의 작가(가 신작 1점을 출품해 본선 심사를 가졌다. 최종 선발된 42의 송은미술대상 후보자 페이브, 권해원, 이은실, 차민정 작가가 전시에 참여한다. 송은미술대상은 전시 형식의 심사를 진행한다.
전시 기간 2월 15일까지 문의 www.songunartspace.org



플랫폼엘 <가능한 최선의 세계>
소설가 장지현과 국내 젊은 작가 102(팀)의 단채전으로 시각예술과 문학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가능한 최선의 세계는 장지현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려온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데, 동시대의 현실과 환경에 대한 직업을 진행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일종의 가상 현실 세계관에 재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작품과 전시를 새롭게 보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참여 작가는 골다민, 권0람, 김현진, 박광남, 박이람, 유영진, 이은서, 정하민, 최은, 최하늘 등.
전시 기간 4월 5일까지 문의 www.platform-1.org



국립현대미술관 <당신을 위하여: 제니 홀저>
40년 넘는 세월 동안 텍스트를 매개로 사회와 개인, 정치적 주제를 다뤘은 세계적인 개념미술가 제니 홀저. 작가 '최초로 시도한 한국어 신작 3점이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과 과천시 공개됐다. 작가의 초기 작품인 '경구들(Truisms)'과 '산동적 에세이(Inflammatory Essays)' 시리즈를 활용한 1천 장이 넘는 포스터를 서울관 로비 벽면에 구현했고, 이번 프로젝트와 동행인 신작으로 최초로 국문과 영문 텍스트를 함께 담은 '당신을 위하여(FOR YOU)'를 설치했다. 이 밖에 MMCA 서울관에서는 올해의 작가상 2019 후보에 올랐던 42의 신작도 오는 3월 1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7월 5일까지 문의 www.mmca.go.kr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틀루즈 로트렉展>
19세기 말 파리의 문화적 황금기인 '벨 에포크' 시대에 빛났던 화가 틀루즈 로트렉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에서 1월 14일 시작된다. 산전적인 유년형과 두 번째 걸친 사고로 152cm 정도의 키와 신체적 장애를 안게 됐지만, 로트렉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가로 우뚝 섰으며, 오늘날에도 '틀루즈 루트렉'의 작은 거인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하라 클레이온 박물관 장려선 작품 1백50여 점과 사진,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총 7개의 섹션으로 구성했다.
전시 기간 5월 3일까지 문의 www.sacticket.co.kr



부산시립미술관 <안토니 고프리: 느낌으로>
이우환 공간에서 개최하는 '이우환과 그 친구들의 첫 번째 시리즈 전시. 안토니 고프리는 신체와 공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조각과 설치, 공공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스타 작가. 이번 전시에서 '뿌리대리는 자 연 작 4점과 함께 16점의 드로잉 등 한국에서 최초로 안토니 고프리의 작품을 공개했다. 세계적인 조각 예술의 거장 안토니 고프리의 작품을 한국에서 감상할 수 있는 드문 기회.
전시 기간 4월 19일까지 문의 http://art.busan.go.kr

HR
HELENA RUBINSTEIN



L'ORÉAL
PARIS



NEW 리-플라스티 리커버리 나이트 크림

30% 프록실린* 단 하룻밤 만에 이뤄내는 매끄러운 도자기 피부

헬레나 루빈스타인

신세계 본점 신관 1층 (02)310-1596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WEST 1F (02)6905-3389

*원료 기준